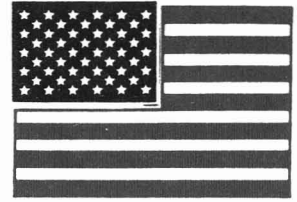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o. Angelo St.  
Seattle, WA 98108  
(206)767-8071

JOO CHAN CHAI, Publisher  
JAE HONG KIM,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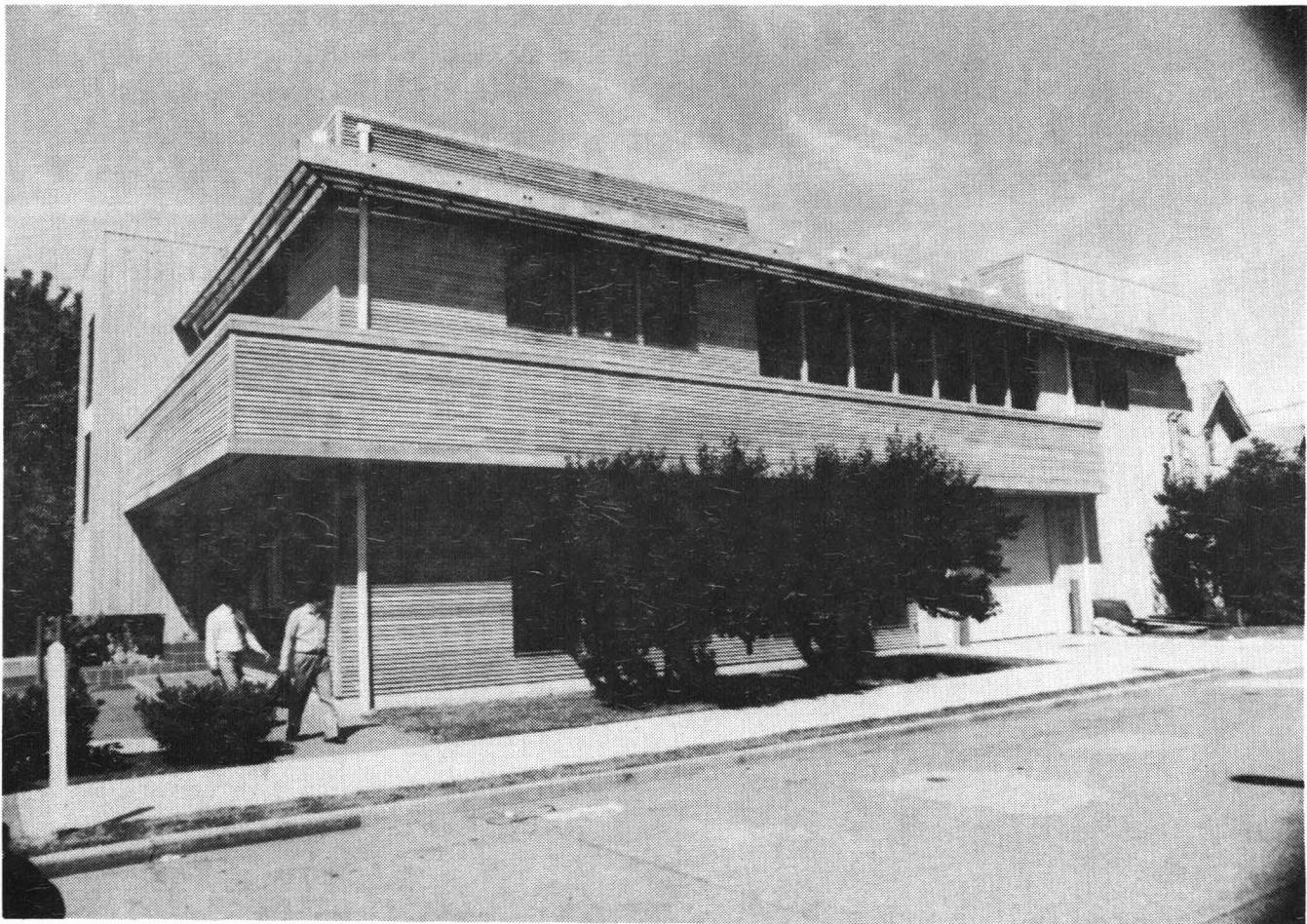


# 한인회보

1988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송년특집



아! 푸른하늘 만큼이나 희망찬 우리들의 전당이여!  
단결과 화합의 광장으로 길이 길이 보전될  
우리들의 집이여! 영원 무궁 하소서.

## 목 차

2	지난일년을 회고하면서..... 한인회장 최주찬
3	송년사.....주 씨애틀 총영사 김홍수
4	한인회를 떠나면서.....사무총장 정병국
5-6	회관건립에 즈음하여.....전한인회장 오준걸
7	한인회관 구입과정을 회고하면서.....이사 윤상인
8	여성의 교민활동 참여의식.....박귀희
9-10	“이달의 인물”.....인간답게 살아가는 길.....편집실제공
11	본대로 느낀대로.....고수정
12	『인생노트』.....이해와 미덕.....조원일
13-14	고사리 은혜.....송호철 목사
15-16	대한민국의 4대 맹점.....편집부제공
17	작은 독백.....이광순
18	어린이를 위한 페이지 “동화”.....편집부 제공
19-20	성경의 중요성과 그 해석방법.....한종수 목사
21-22	『생활정보』 포도주.....편집부 제공
23-28	『특집』 AIDS란 어떤 병인가?.....김인국
29-32	회의 진행법.....문희동
33-36	북한에서 띄우는 편지.....황동규
37	한인사회동정.....편집부제공
38-39	한인사회 소식 및 공지사항.....편집부 제공
41	건축기금 내역.....
43-47	업무보고.....
48	재무보고.....

지난 한해동안 우리 한인회를 보살피 주시고 특별히 회관건립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교민여러분께 우리 한인회 임원이사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교민여러분의 가정위에, 하시는 사업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모아 축원합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임원이사 일동

## KOAM-TV 방송

코엠 케이블 방송(KOAM-TV):

고국뉴스, 지방뉴스, 공지사항, 연속극, 종교방송, 가요무대등 다양한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란 :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선명한 TV 화면으로 25개 이상의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를 즐기실수 있습니다.



### KOAM TV

809 S. 336th St.  
Federal Way WA 98003

◎ 방송 시간표

**CH14가 12월31일부터 CH16으로 변경됩니다.**

* 타코마지역 :	
CH: 29(VIACOM)	CH: 35(TCI)
매주 화요일 5:30-6:30 PM	8:00-9:00 PM
매주 수요일 5:30-7:00 PM	8:00-9:30 PM
매주 금요일 5:30-7:00 PM	8:00-9:30 PM
* 씨애틀 지역 :	
CH: 14(GROUP W)	CH: 18(VIACOM)
매주 금요일 8:00-9:00 PM	
매주 토요일 5:30-7:00 PM	10:00-12:AM
매주 일요일 5:30-7:00 PM	9:00-11:00 AM

“지난 일년을 회고하며”



최 주 찬 (한인회장)

88년은 龍의 해 입니다. 그래서 龍이 하늘을 날으는 기상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조국은 화합의 한마당 88서울올림픽을 멋 드러지게 치루었고, 이제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가 실감나게 한국이 세계에 알려 졌습니다 이제 平和統一만 이룩된다면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룰만 합니다.

우리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도 88년 한 해는 정말로 분주하고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우선 제가 당선공약으로 내세운 한인 회관을 세웠습니다. 물론 교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세운 회관이지만 저는 집안과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한인회 일에 전념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날 행사를 타코마 한인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했고 콧대높은 주지사 내외가 참석하여 무려 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힘찬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4-5만 교민의 1/10도 안되는 적은 교민이 참석했지만 이 행사를 위해 저는 술한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에서 우리는 오래간만에 조국의 향수를 맛 보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과 우리의 힘찬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교통사고를 5번이나 당했고 평소 건강에 자신을 가졌던 제가 혈압이 228까지 올랐었습니다. 하나님의 가호로 큰 변은 모 면했으나 지금은 월 2회씩 진단을 받으며 약을 늘 복용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 및 이사장 여러분, 그리고 뜻있는 교민들의 협조로 한인회관이 세워지고 입주식을 새 회관에서 하던날 저는 말할수 없이 기뻐고, 내집을 마련한것 보다 더 기쁨을 맛 보았습니다. 이 영광을 우선 하나님께 돌리고 다음은 이 지역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주 어느지역

교민회관보다도 아름답고 멋있는 회관을 우리는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한 사항은 90%이상 달성했습니다. 한인회장은 교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또한 대변자입니다. 무슨 큰 명예를 얻는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위해서라면 한인회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를 가나 언행에 조심해야 하고 모든 교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월급없이 봉사하는 Volunteer입니다. 열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하면 언론에게 당하고 교민들에게 욕을 먹기 일수입니다. 앞으로 한인회를 위해 회장직이나 임원직을 수락하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일에 전념하고 일년에 한가지씩만 교민역사에 남을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일년간 한인회장으로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한점, 또는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교민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일어난 작은 일들이니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계속 한인회 발전을 위해 좋은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8년을 보내면서 새해에는 더욱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활동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속에  
성장하는 교민사회

88년 송년사



김홍수 (주 시애틀 총영사)

88년은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뜻깊은 한해였으며, 이와 아울러 우리 시애틀 교민사회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한해 였다고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6. 29 선언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대행진은 지난 2월 제 6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하였으며, 새 정부는 각분야에 걸쳐 진정한 민주 제도의 구현을 위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2년만에 동서남북 160개국의 젊은 이들이 한마당을 이룬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우리민족의 무한한 역량을 세계에 과시 하였으며, 우리들로 하여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도 가능하게 하였다는 크나큰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국력신장에 따른 정치발전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의 바탕위에서 북한을 이제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동반자의 협력관계로 포용하는 새로운 통일, 화해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이라는 우리의 궁극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 우리 교민사회도 금년 한해동안 국내못지않게 크게 성장하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한인사회의 20년간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구입 문제가 역대 한인회장 및 임원들, 특히 금

년도 한인회장과 임원및 이사들의 끈질긴 노력과 교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서북미 한글학교 교역자 연합회”가 결성되고 “생활상담소”가 더욱 활성화 된것도 2세 교육과 교민생활 수준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더없이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민사회의 미국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노력이 눈에 돋보이는 한해였습니다. “한·미 친선 올림픽 후원의 밤”및 “한국의 날 종합경축행사” 그리고 워싱턴주 100주년 기념행사의 개막 행사로서 한·미 친선회와 “워싱턴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여 아국문화를 소개하는 남사당 초청 공연회를 가진것등은 워싱턴주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와같이 미 측 지역사회와의 교량역활에 기여한 일련의 활동들은 크게 평가되어야 할 일로서, 미국사회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금년 한 해의 성과와 발전방향의 기초위에서 금후 우리 교민사회가 더욱 뻗어나갈 것을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해 총영사관은 계속 조용한 후원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적은 힘이나마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89년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 “한인회를 떠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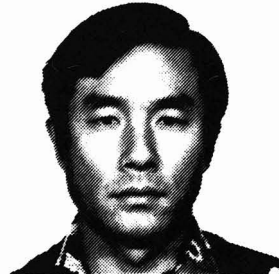
정 병 국 (사무총장)

금년초에 한인회일을 시작한것이 엇그제 같은데 일년이 다 지났다. 언제 꽃이 피고 지는지, 언제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게 바꿨다. 글을 쓴다는 내 자신이 금년에는 한장의 원고지도 메꾸지 못한채 12월을 맞이했다.

매일같이 판에 박은 듯한 공문, 광고문, 연설문, 계획서등을 쓰다보니 이제 순수한 글은 쓴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졌다.

어찌되었던 금년은 미국생활 근 20년만에 가장 많은 한국사람들을 만나고 출장도 많이 다녔다. 나를 극진히 생각해주고 모든 일을 소신껏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준 최주찬 회장께 감사를 드린다. 21년만에 어엿한 회관을 마련했고, 구태의연한 한인회칙을 개정한일, 또 한국의 날 행사를 범 교포적으로 치룬일, 씨퀘어 퍼레이드에서 당당히 2위에 입상한 일등은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우리 한인회가 한일은 본 회보 뒷면에 총회 보고서에서 비교적 자세히 열거 했으므로 생략하고 한인회를 떠나면서 지난 한해동안 느낀점을 적어보려 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 글은 어떤 편견이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쓴것이 아니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썼다는 점을 밝혀둔다.

6월25일, 구름한점없이 맑은 날씨에 푸른 잔디 운동장 위에서는 대형 호들이 풍선, 오색찬란한 메머드 고무풍선들이 태극기, 성조기,올림픽기를 붙잡고 휘날리고 있었다. 술한 돈을 들여서 한국의 날 행사를 준비 했고, 각 언론기관에 기사와 광고로 교민들에게 수 차례 알렸다. 뿐만아니라 타코마 한인회와 공동 주최로 이 행사를 벌였는데 이것은 순전히 많은 교민을 동원하고 인근 지역 한인회와 단합된 힘을 보이고저 시도 했던 것이다. 거대한 조직을 했고, 여러번 회의를 했으며 많은 물품들을 한국에서 혹은 현지에서 구입했다. 수천명이 오리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날 행사에는 겨우 천이백여 명의 교포가 모였다.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교민이 4-5만 이라고 하는데 겨우 천여명밖에 안 모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전체의 1/10정도는 모여야 정상이라고 생각 했고 우리도 그렇게 계산했다. 거만하고 못



대높은 주지사도 부인과 함께 나왔고 30여 미국정치인들이 참석했는데 이 지역에 백여 명이나 된다는 교역자들을 찾아 볼수가 없었다. 겨우 서너명의 목사들이 눈에 뜨일뿐이었다. 한 마디로 교회에서 전혀 협조한 흔적이 없었다. 한인회에서는 각 교회에 협조공문을 냈고 교역자 연합회에도 협조를 구했으나 결과는 냉담했다. 이유인즉 한인회장이 통일교인 이라서 외면을 했다는 것이다. 한인회장이 무슨 종교를 가졌건 무슨 교파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한국교민을 위하고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무슨 종교인이건 상관할것이 없다. 한인회장이 선교나 포교활동을 하는것이 아니다. 1년만에 회관도 구입했고 너무 한인회에 신경을 쓰다가 큰 교통사고까지 치룬 그에게 위로의 마음은 고사하고 웨방이나 놓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 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교민을 위하고 한국의 얼을 이 땅에 심는 일이라면 무슨종교건 어떤 교파이건 상관없이 따르고 협조해야 한다.

앞으로 누가 한인회장을 하건 그가 하는 일이 옳고 위하는 일이라면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우리만 못하다고 하는 약소민족도 한데 뭉치고 협조하는 정신은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에 회관을 마련했다. 이제 그들은 문화회관,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모금하고 있다. 교민수도 우리보다 훨씬적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예쁜집을 쉽게 노래하며 짓는다. 그들은 뭉치는 힘이 우리보다 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뜨겁다. 우리 4만여 교포들도 늘 푸르고 싱싱한 상록수처럼 변함없이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뿌리를 찾는일에 정신을 쏟아야겠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커뮤니티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찾아와서 협조를 청하게 될것이다. 올림픽도 멋드러지게 치뤘고 이제 머지않아 금강산 구경도 자유로이 할수 있게 되었으니 머리들고 한국인임을 내세워도 되겠다. 다만 함께 뭉치고 서로 협조하는 정신만 심어진다면 말이다.

## 회관건립에 즈음하여

오준걸 (전 한인회장)

1988년 11월19일 오늘은 SEATTLE-WASHINGTON 주 한인회가 회관 건립을 드디어 하고 입주한 날이다.

우리 이곳 교포들에게는 21년간의 오랜 세월동안 염원하던 우리집을 마련하여 축하하는 잔치의 날이기도 하며, 또한 교포 한사람 한사람 마음속에 교포 발전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입주식을 거행하는 동안 회관벽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항상 우리 교포들을 사랑하시고 후원하시고 회관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던 이창희 회장님, HOLLOWEEN 호박을 팔아가며 우리집 장만을 위해 뛰어다니시던 김현중이사님, 두꺼운 철판을 손수 절단하고 용접하여 회관건립 기금함을 만들어 식당과 식료품점에 비치하던 정철식회장님, 그리고 과거에 이 일을 위하여 분투하시던 회장님들, 이사장님들, 이사님들 그리고 임원님들, 기금모집 할때마다 서슴치 않고 협조하여 주신 교포여러분들, 한인회를 아끼시는 노인회 회원님들, 우리집 살수있기를 바라며 호박을 두개, 세개를 사가던 우리 2세대이민생활 10년에 단 \$1.00도 안되는 PAPAYA들 아까워서 사먹지도 못하고 절약과 검소를 일관하여 이번 회관건립에 큰몫을 하신분, 자동차를 수리하여 때묻고 기름진 손으로 기금을 시사한 분들, 특히 금년 한해동안 기필코 우리집을 마련코져 수고를 아끼시지 않았던 백용기 이사장 이하 이사및 임원일동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와 칭송을 바치는 바이다. 우리 시애틀지역 교포 하나하나가 뭉치고 뭉치어서 협력하고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으며, 또한 희생도 있었고 투지도 대단하여 오늘이 있었으리라.



이는 이곳 한인사회의 밝고 명량한 앞날을 기약하고 쉬지않고 이를 향해 질주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세계의 체전인 '88OLYMPIC GAME 을 자랑스럽게 치루워 내듯이 이곳 온 교포들도 피와땀을 흘린 댓가로 우리의 염원인 자체회관도 건립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동안 한인회는 집이없어 이루말을 다 할수없는 설움을 겪어왔다. 8차에 걸친 회관입주와 이전, 때로는 한해 2차에 걸쳐 이사 다닌적도 있으며, 학교, 사무실건물, 일본회관의 일부, 또는 VIETNAM 난민들의 회관의 일부에 셋방살이도 했으니 말이다 그 뿐이겠는가? 월세를 내지못해 집주인으로 부터 재촉 받기가 일수요 추운겨울 HEATING이 들어오지 않아 총회할때 모두가 추워서 떨기도 했다.

우리는 그래도 이민의 역사도 길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었건만 난민으로 동정받던 VIETNAM 회관의 일부에 세를 들었던 일은 나로서는 슬프고 쓰라린 추억이었던 것이다. 호박팔아 마련한 건축기금으로 적은 우리집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건만은 이 기회를 노치고 말았으니 원망스럽기 끝이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이사를 자주 다닐때 그래도 VIETNAM 난민들이 순간적으로 부러웠던 적도 있었다. 21년간을 보내는 동안 회관건립을 하지못하고 좌절하여 건축위원회가 무산이 되었고 다시 설립이 되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자체회관을 갖고 한인회의 임무를 온전히 다하며 교포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곳사회를 이끌수 있을까 했던

것이 드디어 이룩 되었으니 오늘의 기쁨은 교포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특별히 이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추진해온 금년도 한인회장을 잇을수 없겠다. 흔히들 최주찬 회장은 BULDOZER(별명)라고들 한다. 그를 회관건립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공신 BULDOZER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땅을 밀고 다지고 밀고 다져나가는 것이 BULDOZER의 역할이다.

최회장은 이곳 교포사회가 무엇보다도 우리회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또한 우리손으로 자체회관을 건립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투지가 있었기에 그는 불철주야의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댓가로 작은규모의 새건물을 마련하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라는 간판을 내걸수 있게 되었고 태극기와 성조기도 함께 푸른하늘 높이 휘날릴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이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명랑하게 자랄수있는 계기가 드디어 도래 한것이다.

마치 나이 어린 한국의 소나무를 우리 모두가 힘과 힘을 모아 이지역에 심어놓은것이나 다름없으리라 화분속에서 영양실조로 숨막히는 협소한 공간속에서 마음껏 자라나지 못하고 마음껏 기지개를 펴지못하던 빈약한 한 소나무는 드디어기름지고 한없는 넓은 공간과 대지속에서 마음껏 자라날수 있게 된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어린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기르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어야만 하겠다. 주위에 흔들지말자! 짓밟지말자! 잡초가 나거든 이것도 제거하자! 강풍이 불어올때 막아주자! 목이 마를때 물을주고 영양이 부족할때는 비료도 주자!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기르자! 그리하여 이 소나무는 힘껏자라고 자라 깊은땅으로 푸른 지하늘로 굳세게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소나무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 거목속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고 노래하며 춤추는 보금자리의 한인회가 될 것이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나, 당분간 참고 견디어 나가자 한인회가 발전의 일로를 걷고걸어 우리에게 합당한 규모의 회관을 다시 이룩하자. 우리는 새로 마련한 회관을 통하여 교포사회의 구심체로서 봉사기관으로서 권익옹호의 기관으로서, 무력무력자라는 2세 교육의 터전으로서 또한 황혼을 바라보며 밝은 앞날을 고대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의 위로의 장소로서 쓰여지기를 바란다.

더한층 나아가서 날로날로 발전하는 우리조국을 알리고 후일 통일된 조국을 만방에 알려 한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줄수있는 명실공히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JOHN F. KENNEDY 대통령의 말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묻기전에 나 자신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수있는가를 생각 할수있기를 바란다"은 모두가 숭선수범하여 한인회의 어린 소나무를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선 희 미 용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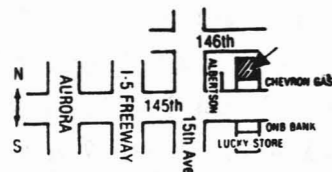
한국·일본·미국 면허취득 20여년 경험으로  
항상 여러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남녀 헤어컷·신부화장 맛사지전문  
피부미용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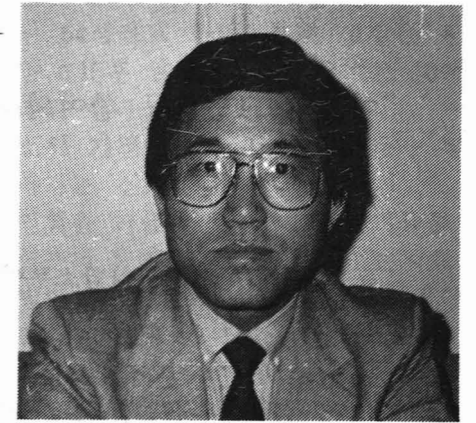
**367-2168**

1551 146th St. N.E.  
Seattle, WA 98155



## 한인회관 구입과정을 회고하며

윤상인이사  
(센츄리부동산대표)



한인회관 구입이라는 교포들의 숙원 사업을 추진중 구입 절차에 직접 관여해 온 Broker로서 어려웠던 일들과 보람된 일들을 적어 보기로 한다.

계약된 시간내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건물을 찾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물구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요청을 토대로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소모해 왔다.

### 아래조건

- 1) 위치는 타코마, Federal Way, North Seattle의 중간정도 지점일것.
- 2) 현금으로 살 수 없을때는 Note에 Personal Guarantee가 가급적 없는 것일것.
- 3) 건물년령이 오래 안되고 회의실, 사무실, 파킹장이 골고루 갖춰야 할것.
- 4) 투자성도 많아서 건물도 가격이 잘 오를 수 있는 지역일것.

20여개의 건물을 물색하던중 위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적 갖춘 건물이 바로 이번엔 확정 구입키로 한 George Town건물이다.

지은지 5년이 안되었고 약 12,000sq의 대지위에 2층으로된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서 5번 Free Way에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잔금은 주인에게 갚는 식으로 되었으며 또 아래층은 당분간 주인이 계속 Rent를 내며 쓴다는 조건이었다.

2층 한쪽방까지 Lease하면 월 2,100불 정도의 고정된 수입원이 있고 월부금이 1,800불이니 큰 부담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건물 구입중에 어느것은 너무 낮게 Offer를 해서 빼앗겼던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건물은 Asking Price보다 더 비싸게 팔린 것도 있었다.

George Town건물도 Note를 Guarantee 하는 문제가 벽에 부딪혔었지만 Seller중에 한쪽 Partner가 Real Estate Broker였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절충한 결과 Personal Guarantee없이 한인 회장 한사람만 Sign하고 건물 자체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끝이 맺어졌다.

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비영리단체인 한인회가 건물 구입하기란 Note Sing문제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분 중에는 "두고 보시오. 불가능할테니"라는 전망을 해온 분도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인 교포에게 임한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해야겠다.

이와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한인회는 이제 더더욱 어느때 보다도 내적, 외적으로 융화 단결해서 발전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온갖 Service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될것이고 또 이곳 모자이크 사회속에서 다른 소수민족과도 잘 협조하고 동화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한국인의 Image를 심어야 되겠다.

이제 막 성공적으로 세계 제24회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곳 교포사회에 경사가 난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이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건물구입을 중개할 수 있는 영광과 건물 구입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일한거를 지극히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보람을 교포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요한 수확을 한인회가 거두게 됨을 그동안 물질과 시간을 바쳐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억척스럽고 불도저같은 최주찬회장 만세!!

## “여성의 교민활동 참여의식”

박귀희(한인생활상담소부이사장)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여성이라는 gender에서 오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여성의 역할”과 아울러 한국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사회적 구조에서 특히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Fraternity의 배경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인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 활동에는 원천적인 거부감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본인은 얼마전에 한인회 정관개정위원으로 잠시 참관할 적이 있다. 그 정관개정위원으로서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하면서 특히 사업부문에 한줄로 정의되어 있는 부녀자 문제가 흥미를 끌었다. 한인회의 정관에 부녀자는 미성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일부”에 속하고 있었다. 그 구 정관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으로 우리 여성교민 활동의 범위를 우리는 쉽게 가늠해 볼수가 있는 것이다. 부녀자는 미성년자와 같은 위치에서 한인들의 보호와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녀자는 한인회의 당당한 회원 멤버라기 보다는 피보호자로서 한인들이 가르쳐서 일깨워야 할 일종의 “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구 정관이 쓰여지던 당시의 여성상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보겠으나 현재에도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에 속한다. 이러한 의견은 또한 어찌보면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인회 부인회의 활동의 중요 부분이 피크닉이나 행사때 음식준비에만 그친다면 이러한 의혹을 씻기는 어렵게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성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하와이에서 나온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인들의 이혼율이 백인 다음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일언지하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금물이나 결혼을 하면 그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즉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얼마간의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일부 나타낸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허나 흔히 부인 멤버들은 저녁에 회의에 나갈때 어린 자식들에게 부과하는 통금시간을 자신에게도 불문율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은 식구 저녁 해먹이고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이러한 의식구조를 고치기 전에는 “이등시민”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벗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곳 한인사회도 이제는 4만을 헤아린다고 하며 좋은 한인회 건물도 구입하게되어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돈으로 장만한 것이다. 여성들은 얼마나 기부금을 냈을까? 우리는 이 마당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다각화된 오늘의 사회구조에 적응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라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Korean Identity는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를 너무 강조해서 스스로 문을 닫는 “자폐증”에 빠질 염려는 없을까? 우리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이곳 미국사회에 뛰어드는데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지금 한인사회는 그 수가 늘어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런 시기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그 의의가 크며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기관들은 그 기관자체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인 사회의 멤버로서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무해야 하는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이달의 인물』

### 「인간답게 살아가는길」

(한인회관 건립에 거금회사한 김경완씨편)

건강상 웬만해서는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방으로 연락을 취한 결과 교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을 잠깐 얻기로 약속을 받았다.

유난히도 쌀쌀했던 어느 주일날 오후 3시경 나이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다정히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김선생님 내외분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얻었다.

“어떻게 그렇게 두분이 젊은이 이상으로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이나”고 묻자 이 세상 우리들 이상 또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한다. “실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주인 양반이 건강이 좋은편이 아니어서 집에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다니는 편이지요”라고 부인 조인실씨가 대답한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이들 부부는 예수를 잘 믿어서인지(?)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스런 마음으로 가득찬듯함을 느끼게 한다.

언뜻 보기에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나 금년 64세라고 한다. 본래 고향은 평안도 평양 8.15후 월남, 미국에 온지는 10여년전이라고 한다.

소위 가정에서의 가훈 이라든가 평상시 살아가는 신조 같은것 있으시면 또 이번 한인회관 기금에 3만불이라는 거금을 회사하셨는데 특별한 동기라도 있었는지요? 뭐 특별한 동기랄게 있겠습니까? 젊었을때 정말 몰랐는데 나이를 한살 두살 더해감에 따라 「인간답게」살아야 겠다는게 절실했지



고 지금의 나의 신조이며 나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한가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기도 하지만 물질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때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을 인간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물질에 인간이 이용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은 모으기 보다는 쓰기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질은 어떤 방법이든 어느 장소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언제라도 벌어질수가 있다고 친다면 물질이 인간에게 쓰여지는 용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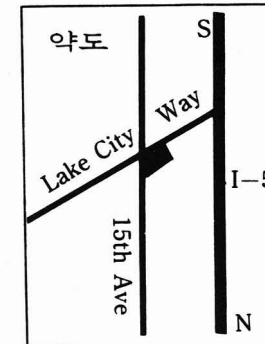
### 김청작 종합정비

Kim's Auto Repair & Body

지난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새로운 멋과 감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24-6005 ●

(Bus) M-F 8-6  
Sat 9-3



### 앞서가는보험인

## 박건홍에쿼터블보험

생명 · 퇴직 · 사업체보험  
교육 · 건강

Bellevue 451-3700

Seattle 728-2400

RES 527-8094

개인사무실 522-7179

Tacoma Mall # 425

Post Office Box 11309

Tacoma WA 98411-0309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울수가 있지요.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물질을 모으든간에 어떻게 쓰는데 의해 「인간답게 사느냐」 아니면 . . .

역시 젊은시절 법학도로서 법학을 전공 해서인지 인생론 이론을 논리 정연 하게 떠나가는 모습은 절제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들곤했다.

실은 오래전부터 교민사회에서 교민회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은바 있어 시기를 기다리던 차에 금년엔 뭔가 실질적으로 실천되는것을 보고 작은 성의지만 결심을 했노라고 한다. 그는 또 잊지않고 바로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필자가 느낀것은 그들 부부는 철저하게 동반자이며 영원한 반려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마디 말을 할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멋진 부부였다. 누가 먼저 기금을 내는 일에 제의를 했냐고 묻자 철저하게 상대방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할수없이 같이 동시에 제의를 했다고

양보를 하기도 . . .

2남2녀를 둔 그들 부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은일은 손에서 떼지 않겠다고 지금도 일선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뒷전에서 제반관리를 하고 있다고,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우리 주인양반은 딸아이가 피아노를 칠때 뒷전에서보고 배운실력이 수준급이지요”라고 대신 설명을 하기도. 일찌기 평양의 명문여학교를 졸업한 부인 조인실씨는 그래서 그런지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으로 살아가는듯하다.

앞으로 남은여생 소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하고 싶은일이 있다면(?)하고 묻자 “요즈음은 의술이 발달해서 앞뚫보는 장님도 수술을 하면 광명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회가 생기면 개안수술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고 비장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인정이 메마르고 감정마저 메말라가는 요즈음의 세상 우리 다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다.

인간 김경완씨는 오늘도 돈을 버는일 보다는 쓰는일에 고심을 하며 살아간단다.

“본대로 느낀대로”

고수정(KOAM-TV)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한해가 저물어가는 발길을 채촉하고 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무진년 한해는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더욱 기억에 남는 해가 될것같다.

첫째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해이며

둘째는 민주주의로 한 걸음 다가서는(?) 정권교체가 있었던 해이고

세째는 한때 나랏님으로 앉았던 사람을 귀향(?)보내고야 만 해이며

네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치풍자 코메디 등이 TV를 통해 방송된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 시애틀에서도 또한 천구백 팔십팔년도는 우리말 그대로 팔팔했던 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랜세월을 이곳에 있었던 필자는 아니지만, 6년여의 시애틀의 생활중에서 올해와 같이 활발한 한인회의 활동은 처음 이었고, 이는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튼튼하게 하는 박진력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일일이 열거할수는 없지만 대충 생각나는 큰 행사만 적어본다면, 시애틀 타코마가 한테 어우러져 펼친 한국의 날 행사가 그랬고 2등의 수상을 차지한 Sea-Fair Parade, 청소년 캠프, 추석맞이 경노잔치, 축구대회, 그리고 모두의 염원 이었던 자랑스러운 한인회관 구입과 입주식등이다.

모두들 바쁜 이민생활, 때로는 타성화된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때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뜻으로 뭉치면 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운동이었다. 때로는 모금함에 기부금대신 망발의 쪽지를 써 넣어 입맛을 떨어뜨리게한 열성과(?)도 있었다는 후문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성금과 각단체의 기부금, 그리고 크게 기부금을 내주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한인회관은 그 위치와 모습을 확실히 하였다. 선명하게 보이는 한인회의 현판은 그동안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니느라 주름졌던 얼굴을 깨끗이 다

리미질 하여 펴 놓은것 처럼 산뜻하고 환해 보였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느주 보다 깨끗하고 아담한 한인회관을 가진 우리 즉 시애틀의 교민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어렵게 마련한 한인회관, 21년동안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했던 시절을 돌이켜보아 현재는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지만 앞으로 합심 협력하여 건물전체를 활용, 많은 문화적인 행사등으로 한인회에 적극참여 해야하지 않을까? 뒤돌아서서 빼돌어진 비판만 하는것 보다는 함께 협력하여 좀더 알찬 미래를 설계할수있도록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한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말을 앞세우거나 비판을 하는것이 현명한듯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보다는 말없이 실천하는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것을 이루고야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88년 일년동안 한인회의 일을 맡아 주신분들, 즉 회장단을 비롯하여 뒤에서 모든 행사마다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밤낮으로 뛰어주신 임원까지 모든 분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인회를 운영해갈 새해의 회장단과 임원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

우리 교민들은 또한, 우리가 있으므로 한인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인회 일에 스스로 참여 궁금한것이나 원하는 것등을 수시로 알려 활발한 한인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외롭기만한 이민생활이기 보다는 창조적이고 활기에 찬 우리의 한인사회, 타 민족에 모범이 되고 긍지를 가질수 있는 우리 한인사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VALUABLE COUPON**

교정 및 의치전문

## 라베나 치과

최고의 품질 · 최저의 가격

- 독일 및 미국 치과의사 자격증 소지
- 한국인 부인과 조수가 통역
- 킹카운티에서 두번째로 큰 치과병원

본원에서는 송치제거 최신 악물요법을 사용하여 증세에 따라 마취나 드릴을 하지 않고 오직 환부만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의 치** - 톱포먼트(상하 완전의치 \$548.00)  
라베나치과의 모본의치는 직접 제작·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치열교정** - 풀이 일절 (저녁과 토요일도 예약치료 가능)

점 사

스케이링 **ALL AT 1/2 PRICE**

X-레이

플로라이드



**DR. I. R. HOLTZ**

# 525 · 6181

916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15

**VALUABLE COUPON**

“이해의 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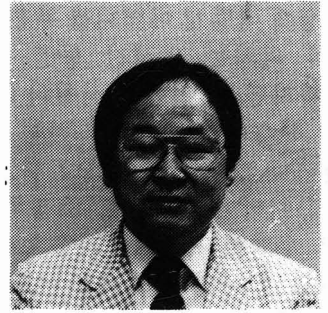
조원일 (상록회 회장)

오래전 내가 젊었을때 들은 이야기다.  
 신접살림의 어느 신혼부부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다 남편 되는 사람이 첫 손갈에 들을 우지끈 깨물었다. 남편은 발끈하여 부인의 부주의를 책망하였고 끝내는 옥신각신하다 부인의 인사에도 못들은체 대문을 나서고 말았다. 서울의 출근길은 교통지옥이다 만원버스의 차장이 등을 밀어 안쪽으로 떠밀자 그는 차장과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승객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버스에서 내린 그의 기분이 말이 아니어서 아래만 내려보고 걷다가 평소에 자기를 끄찍이나 아껴주던 선배와 어깨를 스쳐 가면서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니 선배의 오해까지 자초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상사의 눈총만 맞다 퇴근하게 되었고 출근길의 버스 차장과와 시비가 생각나 아예 집까지 먼길을 걷기로 하였다 기진맥진하여 집안에 들어서니 부인이 안보인다. 방문을 여니 냉기가 확 얼굴에 닿는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는 부인의 전갈 쪽지만이 경대위에 놓여있다. 갑자기 시장기가 엄습해와 견딜수가 없어서 서투른 솜씨로 쌀을 일어 밥을 앉혔다 결국 그는 첫 술에 들을 우지끈 우지끈 깨물게 되었고 식사도 포기한채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무렵, 근처에 또 다른 신접살림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남편되는 사람이 아침식사때 첫 술에 들을 깨물었다. 부인이 미안해 하는말에 내 이가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해주어 들을 골라냈으니 나는 감사할 따름인데 당신이 미안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니 부인의 행복해 하는 표정은 그를 무척이나 기쁘게 했다. 버스차장과 시비할리 없었고, 얼굴을 들고 다니게 되니 선배와 마주치면 몰라 불리었고, 회사에서의 일 처리도 한결 잘하게 되니 상사로 부터 칭찬까지 받았다. 퇴근하여 집안 골목길에 들어서니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안에 가득 하더라.  
 위의 이야기는 다분히 훈화적(訓話的)인 것이기에 간혹 가까이 지내는 몇몇 젊은 사람에게 들려주곤 하였다.  
 그런데 몇일전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에 50대 후반의 어느 교회집사 한분과 나는 육중한 식탁과 의자를 손수레에 실어 힘들게 나르고 있었다. 손수레 바퀴가 돌뿌리에 걸리는 바람에 덜컹하는순간 그분 손의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 순간 내게서는 젊은이 라도 함께 도와 주었더라면 하는 불평이 튀어 나왔다. 그런데 그분은 내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게 아닌가 “무얼요 힘이 들긴해도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분은 진정 우리의 별이다. 별은 하나일 수가 없다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곳 한인 사회에도 분명 별은 많을 것이다. 별이 많이 있는한 한인사회의 앞날은 그 만큼 밝을 것임이 틀림없겠다.

고사리 은혜

송호철 (켄트 나사렛한인교회 목사)



고사리하면 시애틀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연 특산물의 명산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한국분들이 이곳에 정착한 덕분이라 한다.  
 역시 많이 있고 맛이 있어서 타주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로 부터 전화의 끝맺는 말이 “좀 부치라구” 하며 지방주문 내지는 청탁을 받으니 말이다. 어떤분은 조국에 수출까지 한다고 한다.  
 가끔 길거리에서 모자를 쓰고 봉투를 들고 무언가를 채취하시는 모습을 볼때 제삿상에 서만 맛보았던 그 고사리를 담고 계신 것이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고사리를 꺾는 재미는 그야말로 꺾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시며 꿈속에서도 “뚝, 뚝”소리가 들릴정도로 재미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중에는 동네 근처에서, 주말에는 자녀들을 앞장세워 교외로 원정을 나가셨다고 하신다.  
 고사리 철만되면 한 때는 교회의 출석이 많이도 부진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고사리에 얽힌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교외로 나가면 고사리 밭들이 있는데 낮으로 벤다고하며 짹-악 널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곳은 극비에 붙여졌기 때문에 나랏님이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라 “거 왜 안가르쳐 주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사리계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촌 사람이란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가 일년을 연장 시킬수 있는 명 대답이란다.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매년 5월이 되면 잊혀지지않는 이야기가 있다.  
 나에게는 7순이 넘으신 노모가 계신다. 내 대에는 어려서부터 결심한것중에 하나가 효자다운 참 효자가 되어 보고 싶었다.  
 더우기 십여년전 미국에 처음 온날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들판을 아파트 창문너머로 보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시큰거리는

콧등을 부비며 더욱 잘 모셔야 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불효자임을 뻘속 깊이 느끼며 항상 나를 염려해 주시는 그 말씀속에 살아가고 있다.  
 수년전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셔서 고사리가 많다고 들었다며 한번 가자고 하셨는데 2,3년이 지나도록 못해드렸다. 그래서 하루는 큰 맘먹고, 무작정 교외로 나가니 길거리에 많이 있어서 열심히 어머니 뒤를 따라 다니면서 꺾었는데 약을 살포한 싸인이 붙어 있어서 모두 버리고 집으로 왔다.  
 시간이 무척 아까웠다. 그때는 신학공부를 하느라고 아침에 학교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더우기 짧은 영어로 공부하자니 머리털만 빠지고 진전은 없고 밤잠 못자며 씨름을 하고 있을때라 더욱 그러했으며, 어머니께서는 밤샘하는 자식이 애처로워서인지 고사리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 이듬해 고사리 밭을 수소문해서 믿음의 친구를 통하러 극비의 장소를 나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신신 당부와 한번 효도해 보라는 격려까지 받아가며 그 장소에 가보니 많긴 많은데 참으로 힘들고 산세가 험하고 가시에 찔리고 옆으러지고 미끄러지며 쉬운일 이 아니었다.  
 어느 자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왜 이런것을 하는가” 하며 처량맞은 생각이 들어서 산속에서 울었다고 한다. 하여튼 우리 어머님은 무척 좋으신지 점점 깊은 산 중으로 들어가신다 “어머니”하면 “그래”하고 대답은 하시는데 —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누님말씀에 의하면 언젠가는 옆어지시면서도 고사리를 꺾으시는 묘기를 보았다고 해서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확인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죄스러웠다.  
 한번은 제수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고사리가 있는 장소에 모셔다드리고 2시간후에 모시러 갔는데 안나오시며 안계신다고 한다.  
 나는 산 속을 헤매며 “어머니, 어머니”하며 외쳤지만 산울림만 들릴뿐 이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어머니를 부른적은 없다. 미친듯이 외치는 몇시간 동안 숲과 늪을 지나고 빠지면서 “걸음도 시원치 않으니분이 이 험한 산속에서 행여나” 하는 불길한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또 공부를 한답시고 어머님께 너무도 소홀히 해드렸음도 깊이 후회했다. 타는 가슴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고 나의 목소리는 이젠 꼭 잠겨 버려서 나오지도 않는다. 해가 지기전에 경찰에 연락하여 헬리콥터라도 동원시켜야 겠다하고 나와서 한참 가는데 미국에서는 볼수없는 진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피난민처럼 보이는 3분들이 고사리 자루

를 머리에 이고, 지고, 들고 가시는 모습이다. 그중 한분이 어머니임을 확인할 때의 감격은 그 모습이 어떠한 관계없었다. 피난길에 이산가족 찾는 심정이 이렇겠다. 눈물이 펄펄 속구친다. 내어머니시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날 저녁은 내가 섬기던 교회의 부흥회 첫 날이었는데 꼭잠긴 목소리로 “할렐루야” 인사를 하니 어떤 성도님은 나보고 꼭 은혜는 제일 먼저 받는다고 하여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렇다! 분명히 고사리 은혜를 오늘 넘치게 받았다. 아니 매년 고사리 때만 되면 이 지방에 살기에 더욱 의미깊게 받는다.

## 한인회 주소및 전화 번호 변경공고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는 새 한인회관 입주와 때를 같이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온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겠기에 이에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새주소(Mailing Address) : 1200 So. Angelo St. Seattle, WA 98108

새전화번호 : (206)767-8071

사용시작일자 : 1988년 11월 28일부터

기 타 : 11월 28일 이후부터 P.O.BOX 및 구전화번호는 자동 폐쇄됨.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최주찬

# 대한민국의 4대맹점

『 8.15 해방을 44번째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4가지 맹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나 태극기, 그리고 국가나 국군 어느것도 한국국민의 뿌리와 특성을 나타낸것이 전혀없는 모방과 모순 투성입니다』

NewLife 지에서 옮김

김기항 박사  
(에라바마 주립대학 수석연구소장)

### (가) 국명

1860년말 부터 열강들은 한국의 주권과 존재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위협때문에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개혁운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와 개혁운동은 급성장하여 동학운동도 전개하였고 개화당도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박사는 1896년 4월부터 민족주의와 개혁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계몽적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으며 그해 7월에는 조선역사상 최초로 현대식 정당인 <독립회>를 발족시켰습니다.(1)

독립회는 조선은 자주권을 지닌 독립국이며 다른 나라들과 평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하여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을 건축하였으며 국명도 <조선>으로 부터 <대한제국>으로 바꾸는데 앞장섰습니다.(1)

강동주 선생이 <자주>지의 발표한 글에 의하면 조선조 26대 임금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이라는 신국명을 선포하고 스스로 <공무황제>의 위에 올랐습니다.(2) 그런데 <대한제국>이라는 국명은 우리나라와 민족에 맞지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자는 영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자는 제국주의를 상징하지만 우리나라는 영토도 크지 않고 타국을 침략할 국력도 없었고 오히려 일본한테 침략을 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무능, 부패한 이조봉건의 가혹한 압박, 착취와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 1894년의 동

학농민 봉기를 일본군대를 끌어들여 진압하고, 민비가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이후에는 고종 자신이 이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 구내로 옮겨 정사를 돌봐야했던(1896년 2월 11일-1897년 2월 20일)의 소위 아관파천) 상황에서 거창한 <제국>의 성립과 <황제>의 즉위는 일종의 희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2)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는 <대일본제국>의 아류물, 광무황제의 금줄달린 휘황한 서양식 무관제복에서는 일본 명치천황의 왜소한 모조품을 볼 뿐, 조선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2) 그 당시 일본의 국명은 <대일본제국>이었으므로 그때 우리나라 이름은 일본국명을 모방했다고 봅니다.

조국땅에서는 3.1운동이 격렬히 진행중이던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제>자를 빼고 <민>자를 넣었는데 이 <민>자는 1911년 중국 제일공화국 명칭 <중화민국>에서 모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이남에서 단독정부를 세울 때 국명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국명은 명분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막상 임정을 대표하는 김구선생과 한독당은 5.10 선거를 “조국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2)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영토도 크고 침략역사도 가지고 있으나 자기나라 이름에 <대>자를 넣지 않았습니. 또

하나 우리나라 이름에 반어적인 것은 <민>자는 보기 좋게 들어있지만 창국 후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주주의를 실행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사상> 또는 <배달사상>을 연구하시는 김상일 박사가 1986년에 쓴 책(3)에 의하면 <한>의 뜻은 과를 같이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한걸음) - (한동안, 한참)

(한때, 한술) - (한길, 한글)

(한갓, 한그루) - (한목, 한껏)

아무튼 <한>은 현실에 맞게 우리들의 숙원인 통일의 뜻이 들어있으며 동시에 우리들의 비극인 분열이 들어있습니다.

강동주 선생이 <가주>지에서 언급 하시다시피 <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부족국가중 한반도 남부지방에 위치하였던 <마한>, <진한>, <변한>, 즉 삼한의 존재를 생각케합니다.(2) 그리고 <조선>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에서 한반도 최초의 국가로 등장하는 <고조선>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 이전 <삼한>이 존재하던 원시부족국가 시대에 이미 남만주지방(오늘의 요령성 지방)에 <조선>이란 부족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2) 그러므로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하여 재미있는 것은 <조선>은 북방부족의 이름이고 <한>은 남방부족의 이름이었다는 점입니다.(2)

### (나) 국기

1882년 조선 친선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할 때 조선은 어느나라의 간섭과 조종을 받지 않으며 침략을 허락하지 않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조선역사상 최초로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1) 그때 만든 국기가 현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이 국기의 이념과 형태가 태극이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극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태극이론은 그 기본이론이 주역이므로 순전히 중국이론입니다. 그러니 태극기는 보다 중국적 상징이니 중국에 알맞는 국기입니다.

## (다) 국가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안창호 선생이 작사하였다기도 하고 윤치호 선생의 작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합니다.(4)

그런데 애국가의 국은 스코틀랜드의 시인 화벌 번즈(Robert Burns <1759-1796>)가 쓴 시가 민요가 된 "지나간 날" (스칼티쉬 사투리는 "Auld Lang Syne"이고 영어로는 "Old Long Since"든지 "Days Gone By")곡입니다. 이 민요는 미국의 전통적 망년회 노래입니다.

애국가의 첫구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뜻은 하나님이란 국가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못됩니다. 그러니 애국가의 가사는 소수국민의 신앙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방직후까지도 애국가를 스칼티쉬 민요곡에 맞추어서 부르다가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한국의 환상곡"(Korean Fantasy)에 맞추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새곡도 스칼티쉬 민요곡하고 국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사람들은 대한민국 애국가하고 자기들의 망년회 노래하고 국이 같다고 말합니다.

## (라) 국군

1946년 1월에 미군정청이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부터 국방대학까지 모든 군사교육기관은 미국 군사교육기관을 모방하였습니다.(5)

많은 국방경비대 장교들은 일본군대 경험을 가진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반역자들도 끼여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국방경비대를 "국방군"이라고 개명하였다가그후 얼마안되어 "국군"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창군당시 국민들은 국군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인줄로 이해하였습니다.

1963년 3월 15일 대통령령 제 2465호로 공포된 <군인복무규율>에는 "국군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화제로써 이루어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처음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미국의 용병이 되었고 동시에 독재자의 심부름꾼이 되어 국가와 민족을 반역하고 희생시켰습니다.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군인의 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위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불법이며 역사는 틀림없이 범죄적 정치장군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군이 비국군이 된것은 반국가 배족적인 몇몇 정치장군들 때문이지 대다수의 장병들은 애국애족하며 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군사적으로 강한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헌법 제 49조에 의하면 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했지만 국군의 통수권과 작전 지휘권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사령관이 1950년 7월 25일부터 가지고 있으며, 이 사령관은 오직 미국 합동 참모부에만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 한국 대통령에게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와같이 자신의 <국토수호>를 위한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준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군사 통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고 한국의 권력은 국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군은 미군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맺는 말

대한민국의 국명은 일본의 국명 <대일본제국>과 중국의 국명 <중화민국>을 모방하였으며, 국기는 중국의 기본 이념을 반영하였고, 애국가 작사는 국민 소수의 신앙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이 창군하였으며 국군의 속과 바깥은 미군을 모방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국군의 통수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고, 1980년 5월 광주사건에서 보는 바와같이 국군은 기본 사명에서 이탈한 비국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명, 국기, 국가, 국군은 우리민족의 일, 뜻, 멋, 맛, 짓, 풀, 슬기, 뿌리, 사상, 이념, 신념, 신앙, 존엄, 긍지, 희망,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네가지가 대한민국의 기본명점입니다.

## 참고문헌

- (1) A.C Nahm, Korean nationalism: its origin and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23-2 (1983), 19-37.
- (2) 강동주, 대한민국론, 자주지, 17(1986-26호)
- (3) 김상일, 한, 서울 온누리출판사, 1986.
- (4) 양은식, 서신, 1988.
- (5) G. Henderson, The United States and the militarization of Korea: the effects on political development, Korea Scope, 3-2 (1983), 4-8

## 작은독백

이광순

(한국의날 한글백일장 장원 당선자)

비에 흠뻑 젖은 낙엽무리들은 포도위에 힘없이 뒹굴고 무겁게 드리운 잿빛하늘 아래로 겨울은 찬바람을 몰고 내려온다. 이맘때 한장 남은 달력을 보는 내마음에 한가닥 회한이 서려온다.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되돌아오기도 또 매듭도 없이 흐르는 시간이 건만 굳이 달(月) 해를(年) 가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기도 하다. 내게 먼저 와서 부딪는 반성은 "나"만을 위한 폭좁고 어두운 나날의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것이다.

인간세상에 무엇보다 우매하고 추한것은 "이기심"일것이다. 수억만년대의 우주세월에 비하여볼때, 과연 한 점 보다도 미진한 우리들의 육,칠십년의 삶, 그나마 이십여년이란 세월은 수면으로 보내고 깨어있는 의식속에 사는것은 고작 사오십년 이건만, 그 세월동안 "나"만을 위해 땀흘리며 뛰다가 돌아간다는 것은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내 사고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하나의 중요과제 이기도 하다. 물질의 위력에 심한 혼란과 무력함의 비애를 체험하는 우리들은, 내면세계가 갈망하는 진실한 절규도 외면한 채 마치 광란하는 급류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 고국으로부터 날아온 친구 주옥의 편지는 특이한 소식을 담고있었다.

"장사하여 돈을 벌어보니, 욕심만 더해지고 욕심은 지치고 내가영원으로 돌아갈때에 짊어지고 갈 재산도 아닌것을 깊이 깨닫고, 단호한 결심끝에 여섯명의 고학생 학비를 대고 있으며, 보람과 자부심에 마음은 기쁘고 욕심의 피로도 옛같지 않노라고..."

그간 태평양을 두고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나누어온 그 귀한 친구에게 박수가 가득담긴 뜨거운 내 우정의 답신을 보낼것이다.

무언가 남을 도우며 살아가자는 좌우명도 한갓 이상추구에 불과한 미천한 나 자신은 년전 新正日에 뜻있는 가족 나들이로서 「수녀 테레사」의 활동상황 기록영화를 본

일이있다. 팔순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쉬임 없이 병들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 손발을 씻기고 음식을 떠 먹여주는 그녀의 앙상한 손마디와 인자한 미소에서 내가 받은 감동의 깊이는 실로 표현키 어려운 것이었다.

연진, 나는 어느청년 간호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에디」는 유난히도 명절마다 특별한 설명도 없이 휴일받기를 고집하여 동료들간에 불평을 샀으나 그태도가 너무나 진지하여 특혜(?)를 받고 있던중 어느날 우연히 그 이유가 밝혀졌은즉 어느 정박아센터에서 틈틈이 봉사하던 그는, 특히 명절이 되면 게임등 특별준비를 하여 그 아이들과 종일토록 즐겁게 지낸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휴일에 잊혀지기 쉬운 병든 아이들을 찾아가 안아주고 부축하며 함께 웃고 뛰노는 그의 아름다운 얘기는 나를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병원에서 크게 의존하는 봉사원들에게도 나는 남다른 존경의 염을 가진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뜻있는 기쁨을 가지고 묵묵히 수 개년씩 일한다.

근로의 댓가를 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서 깊이있는 철학없이 봉사 선행이 용이치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 일찌기 「도연명」은 "몸이 죽어 없으면 이름도 없어지나니, 오직 착한일을 하는것만이 후세에 길이 남아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 어찌 전력을 기울여 불만하지 않은가!"하고 노래하였다.

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여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 양노원의 외로운 노인을 사랑하고, 두고온 나의 조국과 또 수많은 이방인 우리들에게 현재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준 이 관용의 국가를 위해서도 내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고 설령 티끌만한 몫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련다.

사랑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한한 매력인 것이다.

### An Ingenious Farmer

Once upon a time a good farmer lived with his wife. As he was well-to-do, he lived as happily as can be, working hard and saving as much as they could.

One day after supper, suddenly there was a strange noise outside.

Then about seven young men stalked in the yard.

When the farmer and his wife saw them, they were so scared. Each with a big horn on the head, only one large eye in the middle of the forehead and a big mouth, they were no doubt goblins. Moreover there was a magic cudgel in their hands.

The goblins spoke loudly to each other.

"How about making this house our own?"

"Great idea!"

"Now let's have a round of fun."

The goblins danced in the yard, shouting and laughing. The farmer and his wife watched them dancing, terrified.

After they danced for quite a long time, the goblin who looked like their leader opened the door and entered the room. The man and his wife were so frightened and trembled.

The goblin shouted, "Why, somebody's in the room!"

The farmer was scared to death, but gathered courage and said, "Look, aren't you ashamed that you intrude in my house and make such a row without my permission? Now, leave my place at once!"

"Humph! It's you who should get out since we are going to have this house," retorted the goblin.

"What? Certainly this is my house, and you dare to tell me to leave," the farmer shouted.

The goblin still insisted, "What? From the beginning we used to live here."

The farmer was speechless when he heard this lie, but he persisted with the truth.

"Look! This is the very house that I and my wife built with our own hands last year. Now stop this nonsense and find an other place."

Hearing the truth, the goblin stopped to insist. Then he suggested, "Good! Then, Let's lay a wager on it. Each of us will ask a question, and the one who gives the right answer will own the house."

"No, that's not fair. This is my house," the farmer protested.

Yet after a while he agreed with them.

Then the chief goblin asked the farmer first.

"How many dips of a gourd can dry up the East Sea?" It was really an absurd question, but the farmer replied right away.

"It will take merely a dip if the gourd can contain all the water at one time or two dips if the size be the half."

The goblins were astonished by this wise answer.

"Then, it's my turn," said the farmer stepping down to the floor.

"Will I now enter the room or step down onto the yard?"

The goblins beat their brains, but couldn't answer.

"Well, we lost, Awfully sorry for aaving disturbed you."

Apologizing thus, the goblins left the house defeated by the ingenious and courageous farmer.

원문이 이영진 Retold by Lee Young Jin  
옮긴이 김정매 Translated by Kim Chung Mae

### “성경의 중요성과 그 해석방법

한중수 목사

(웨드렐웨이 현대장로교회 담임)

이 땅위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종교의 가치는 그 종교의 신이 계시 하여준 경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고상한 종교는 고상한 경전을 가지며 저속한 종교는 저속한 경전을 가지고 심지어 경전이 없는 우상종교까지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는것이 종교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라는 말과같이 경전을 연구하여 올바르게 믿고 생활로 실천하는것이 참다운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가 중요한것은 동물들이 빵을 추구하는 자아유지본능(自我維持本能)과 사랑을 표방하는 종족유지본능(種族維持本能)이 있으나 종교는 사람만이 가지는 중요 특성입니다.

인간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영」의 이중적인 존재이므로 물질만으로 인생의 행복을 만족시킬수 없으며 영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때 참다운 인생의 의의나 행복을 누릴수 있습니다.

에딩턴(Eddington)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실제(Reality)는 영적(Spiritual)인 것이라고 했거니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의영혼을 소생시키며 종교의 말씀이므로(요한 6:63) 성경해석의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해석의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것은 알 정도로 많이 읽는중에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열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든지 아니 하든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독자적 신임성(Self-trustworthy)이 있으므로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관념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치 통을 잘 굴리려면 통속에 들어가서

굴리는것이 아니라 통밖에서 굴려야 하는것과 같이 자아의 고집을 버리고 빈마음으로 읽을때 진리의 말씀은 받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자체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경을 읽는중에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게 되며 (학문연구의 한가지 방법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임)성경의 뜻이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벵겔(Bengel)이 “기도 드리며 읽으라” “읽으면서 기도하라”(Praying read, Reading pray)라고 말한것같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므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연구의 제일 좋은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므로 (요한복음 20:31)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추어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들 자신에게 맞추어 해석하므로 이로써 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종교”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할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며 영적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가는데 까지 가고, 성경이 말한데 까지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성경에는 천국광경을 자세히 말하지 아니 하였는데 환상으로 본 천국광경을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재림날 짜등을 논하는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신앙체험을 귀중히 여겨 간직하되, 그것을 객관화시켜 다른사람들에게 강조하지는 말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때 까지의 되어질 일이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되어질 모든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으며 성경말씀이 이 땅위에서 다 이루어진 다음 이 세

상이 끝난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과거의 어느 때 보다도 성경의 예언이 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므로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추어 해석하며 (구속론적 해석방법)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해석 하여야 합니다. (종말론적 해석방법) 어려운 말씀들은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난점은 그대로 두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성경전체의 조화를 이루어 해석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서 유한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 질 때 쉽게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조직을 이해하면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부터-요한복음까지의 사복음서(四福音書)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으로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서 까지의 21권의 서신에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교리(敎理)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할 것인가를 가르친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과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사실과 재림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책으로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상가는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요, 정치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 되거니와 그 마지막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늘날 세상이 소란하며 개개인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근 때문인 것을 깨달아 우리 모두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인 본연의 자세에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 포도주 약으로 마시는가 영양으로 마시는가

**포**도주는 총괄적으로 말해서 인체에 있어서의 갖가지 효소의 결핍을 보충해 주는 뛰어난 약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효용으로서 포도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허기와 갈증을 덜어주며 또한 정신적으로는 대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실로 나무랄 데 없는 음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포도주가 끼치는 생리적, 병리학적인 영향』이라는 것에 대하여 써어진 대단히 학문적인 학술 논문의 수는 많은데 물론 그것들은 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자들은 슬픈 현실을 거기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 ■ 포도주란 무엇인가

포도주는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자성물질(磁性物質)을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에시스 중에는 명백한 항(抗)알콜성 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존재한다. 그리고 포도주의 pH(산도(酸度), 염기도(塩基度)를 나타내는 지수는 2.7~3.2인데 이 자연의 산도(특히 백포도주의)는 타액의 분비를 촉진하며 위액의 산도와도 근사하다.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만약에 위가 쓰러지든지 할 때에는 그 포도주는 다른 것이 섞여 있거나 또는 미숙한 포도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런데 포도주가 위의 반사작용에 미치는 작용에 대하여 서술하기 전에 포도주가 소화기관 전체의 단련과 그 기능의 조절에 큰 효력을 가진 음료이다. 영양으로 마시느냐 약으로 마시느냐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먼저 입, 혀, 구개(口蓋), 식도 등 상부소화관을 지나 그 점막과 직접 접촉하여 거기에 일련의 연속된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들 반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하기로 하자.

파블로프가 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것으로 유명한 '조건반사'가 포도주의 색과 향기에 의해 일어나 타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하여 구강이라는 소화관 최초의 기관에서 녹말의 부분적 소화가 시작된다.



### ■ 소화관에 대한 작용

양질의 포도주에 의해 비강(鼻腔)에 있는 후각과 구강(口腔)에 있는 미각의 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이들 감각이 눈을 뜨면 그것은 신경을 자극하여 대뇌중추로 전달된다. 시각에서 시작하여 다음에 양질의 포도주 적량을 지적(知的)으로 맛봄으로써 우리가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적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천천히 따뜻하게 만드는데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포도주의 향기의 근원이 되는 방향성물질이 조금씩 분리되는 것이다.

파블로프가 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것으로 유명한 '조건반사'가 포도주의 색과 향기에 의해 일어나 타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하여 구강이라는 소화관 최초의 기관에서 녹말의 부분적 소화가 시작된다.

위에 달하면 이번에는 포도주 속의 천연 알콜과 비타민류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 속의 염산의 양을 증가시킨다. 실험적으로는 60~100g의 포도주를 마시면 30분 후에는 약 120g의 위액이 분비되는데 그것은 약 1g의 유리염산(遊離塩酸)을 함유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마르살 박사는, 포도주에는 산화효소(酸化酵素)의 한 원천인 백혈구를 집결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포도주 속의 효모는 동화되고 있는 음식물에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 바오로가 어느날 소화불량으로 고민하고 한 제자에게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너는 물만 마시는 모양인데 그건 잘못이다. 위의 작용을 돕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도록 하여라.」

소화관 속을 더욱 내려가 포도주는 이윽고 십이지장과 소장에도 도달한다. 그러면 본래 이 부분에 있던 글리세린과 포도주 속에 있던 글리세린이 포도주속

에 있는 인산염(磷酸鹽)과 결합하여 글리세린 인산염이라는 물질을 형성한다. 이것은 저장양분으로서 필요에 따라 각 조직에서 이용된다.

케랑씨와 그 공동연구자들에 의하면 글리세린은 임파관을 지나서 간장에 도달하여 거기서 지방과 질소유기물을 절약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췌장의 리파제 분비를 촉진하여 췌액의 지방분해작용을 돕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탄닌은 특히 적포도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설퍼라에만 주의한다면) 소화관의 평활근육섬유(平滑筋肉纖維)에 좋은 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소장의 연동(蠕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복부소화기관(腹部消化器官)의 평활근(平滑筋)의 이와 같은 생리적 수축운동은 담낭과 총담낭 소화 때에 담즙을 장으로 운반하는 관의 작용을 도우며 포도주는 여기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영양물의 대사를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십이지장의 삽관법(挿管法)에 의하여 레펠씨가 확인했는데 그는 20cc의 포도주가 실제로 약 190g의 담즙을 분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두냐 박사에 의하면 간장도 역시 그 기능이 정상이라면 어떤 종류의 포도주를 적당량 마시는 것으로서 좋은 영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것은 포도주에는 간장에 많은 백혈구를 모은다고 마르살 박사가 지적한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인체의 갖가지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포도주에 살균효과가 있다는 것은 옛부터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로마 시대의 외과의사들은 포도주를 상처의 살균용으로 대량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의 학도 포도주가 갖는 이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험결과 1cc의 백포도주가 브이용(고기·뼈를 삶은 물로 만든 세

## 이제부터 보험은...

# 조성환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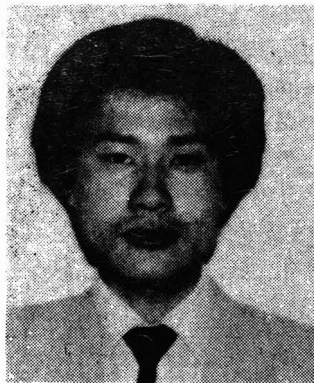
## 메트로폴리탄

“안락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6년간의 보험경험과 정직한 자세로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맞는 상품을 미국 최대의 메트로 폴리탄 보험과 함께 밝은·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길동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주취급상품 : 적금식 생명보험·교육 건강·불구시 생활비 지급보험

전화 : 시애틀 838-9894  
타코마 564-2515  
집 743-4189 (린우드)



고국의 「두레마을」 선교사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나 알고자 하시는 뜻있는 분들의 연락을 아울러 바랍니다.

균배양기(細菌培養基) 1cc중의 티푸스균, 콜레라균, 대장균을 99%까지 죽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포도주의 이와 같은 살균작용은 그 속의 알콜, 산, 탄닌 및 에테르 때문이다.

양질의 포도주는(과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소화관 전체에 대단히 좋은 작용을 미친다.

#### ■ 신경계에 대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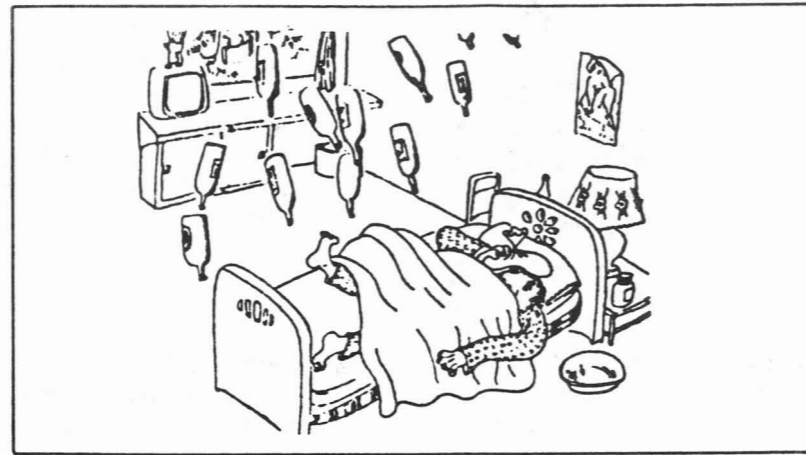
모든 정상적인 개체에는 어떤 자극물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욕구가 있는데 인체의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자극제를 어디까지나 자연적이고 건강적인 양질의 포도주에 찾지 않고 질 나쁜 유독물(有毒物)에 의해 쓸데없는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인(人)은 뇌세포의 영양분으로서 불가결한 물질인데 포도주에 함유되는 천연의 인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보다 훨씬 인간의 몸에 적합한 것이다.

#### ■ 비뇨기에 대한 작용

포도주 특히 백포도주가 비뇨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강조할 것까지도 없다. 그것은 신장에 대하여 이뇨제(利尿劑)와 완전히 똑같은 작용을 미치며(게다가 맛에 있어서는 저 무미 건조한 이뇨제와 어찌 비교할 것인가.) 요(尿)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카를박사에 의하여 그것은 백포도주의 산성과 다량으로 함유되는 주석산(酒石酸)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 ■ 심장, 혈관계에 대한 작용

이제까지 인체의 주요기관에 포도주가 미치는 작용을 다루었는데 마지막으로



로 그것이 심장과 혈관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두고자 한다. 이 문제는 마침 로블리 교수와 르망 박사에 의해 연구되어 그 결과 알콜과 생리적 혈청대용액(生理的 血清代用液)의 33% 용액을 정맥에 주입해도 혈압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또한 공복 때에 30분간격으로 마신 글라스로 2잔의 적포도주(12도)가 순환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실험에 참가한 모든 예에서 심전도(心電圖)에는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동맥경화증과 동맥 특히 뇌동맥의 아테롬에 걸리기 쉬운 경향은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많다는 견해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많다는 견해

도 있다. 마지막으로 근육과 순환기를 규칙적으로 단련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의 경우, 보르도 또는 가벼운 보졸레를 4분의 3리터, 매일(경기 등이 있는 날은 별도로 하고) 마셔도 된다고 앙크스 박사는 말하고 있다.

양질의 포도주는 우선(커피, 차 등과 마찬가지로) 정력절약(精力節約) 또는 보조영양(補助營養)이며 또한 보조약이고 동시에 천연물질의 화학적 운반자이며 또한 정신의 강장제(強壯劑)이다. 위의 사항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라고 하든 포도의 발효과즙(醱酵果汁)은 이처럼 많은 특성을 한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동맥경화증과 동맥 특히 뇌동맥의 아테롬에 걸리기 쉬운 경향은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많다는 견해도 있다. 근육과 순환기를 규칙적으로 단련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경우, 포도주를 매일 4분3리터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한다. 양질의 포도주는 우선 정력 절약, 또는 보조영양이며 또한 보조약이고 천연물질의 화학적 운반자이자 정신의 강장제이다.

## 青島食堂

TSING TAO MANDARIN RESTAURANT  
Authentic Northern Chinese Food

한국인의 입에 맞는 정통 중화요리

Sunday 1 p.m. - 10 p.m.  
Monday Closed  
Tues - Thurs 12:00 - 10:00 p.m.  
Fri - Sat 12:00 - 11 p.m.

13744 Aurora N.  
Seattle, WA 98133  
To Go: 367-9339

## AIDS란 어떤 병인가?

김인국

(현재 UW 임상조교수 이비인후과 의사)  
(한인회 홍보부장)

AIDS란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서 번역하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150만명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돼 있고 유럽에는 50만명, 아프리카에는 300만명, 그러니 전세계 인구중 약 500만 내지 천만명 가량이 AIDS균에 감염돼 있다고 본다. 1988년 11월 30일자 시애틀 PI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제보건기구의 보고를 인용하여 앞으로 3년동안 세계 인구의 약 7백만명 가량이 HIV에 감염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세계에 약 250만명의 AIDS환자가 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4년간 약 25만명이 AIDS로 죽을 것이라고 하며 AIDS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1984-6천만불, 1988-9억불이었고 1989년 예산에는 20억불로 책정됐다.

AIDS가 제일 만연된 곳은 아프리카이다.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자이리, 잠비아같은 나라에는 성인중 5-20퍼센트가 HIV에 감염돼 있고 케냐같은 나라에는 매춘부의 66퍼센트가 감염돼있으며 부타레와 란다같은 나라에는 매춘부의 88퍼센트가 HIV에 감염돼 있다. 이같은 나라에는 병원에 입원 환자중 반이 AIDS검사에 양성이고 출산 능력이 있는 여성의 10-25퍼센트가 양성이니 결국 신생아 사망율이 25퍼센트 증가할 것이고 성인 사망율도 AIDS로 인해 2배, 3배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AIDS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주에서는 보균자의 이름, 주소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고 결혼증서를 받으려는 사람, 마약 중독자, 성병 보균자, 새로 이민온 사람들에게 AIDS검사를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 현재 군인, 헌혈자, Organ and Sperm Do-

nor에게는 AIDS검사를 꼭 실시한다.

이 병은 동성이나 이성간의 성행위로서 전염되며 감염된 피가 주사바늘이나 수혈로 우리 몸속에 들어 왔을때 전염된다. 음식이나 물, 침이나 땀, 오줌이나 똥, 의복, 전화기, 모기나 파리,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다. 즉 학교나 직장이나 식당 같은데서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환자는 초기 증상으로 약간의 열이 생기고 기운이 없어지고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 이런 초기 증상이 생기기까지는 성행위후 약 2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 그후 약 8-9년내에 AIDS라는 병이 생긴다.(10-30퍼센트는 5년내에 발병)

AIDS가 생기면 진단후 거의 100퍼센트가 5년내에 사망한다.(50퍼센트는 18개월내에 80퍼센트는 3년내에 사망)

이 병은 인종 차별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다. 이 무서운 병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히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981년 6월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난 8개월 동안에 다섯 케이스의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PCP 아주 드문 폐렴중의 하나) 환자가 LA에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대개 이 폐렴은 인체 면역 기능이 파괴된 환자에서 생기는 것으로 1967년에서 1979년까지 미국전역에 단 두 케이스밖에 보고되지 않았었다. 이 다섯명의 환자들은 다 젊은 동성애 남자들이었고 면역 기능을 마비시킬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시기에 NY와 캘리포니아에서는 28 케이스의 Kaposi's Sarcoma(아주 드문 암으로 주로 늙은 사람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생기는 병)가 젊은 동성애 남성들에게서 발견됐다고 CDC에 보고됐다. 이들 환자중 몇명은 PCP도 겪어 앓고 있었다. 이 환자들의 공통점은 다 심한 면역 결핍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Pneumocystis Carinii 폐렴, Kaposi's 암, 심한 면역 결핍이 겸한 병을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이름 붙였다.

1982년경에 또 발견된 사실은 AIDS가 동성애 남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였다. 즉 수혈 받은 사람, 혈우병 환자, 마약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했다. 특히 수혈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그들은 다 AIDS가 생기기전 2년내에 수혈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AIDS라는 병은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항체가 환자들의 피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AIDS 혈청검사가 발명되어 환자들과 일반인들에게 HIV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는 1988년 7월까지 CDC에 보고된 AIDS환자는 총 66,464명이고 이중 37,535명(과반수)이 죽었고 죽은 사람들의 80-퍼센트가 1985년 이전에 진단 받은 환자들이다. 1981년부터 시작된 이 AIDS환자중(미국) 63퍼센트가 동성에 남자들이고 7퍼센트가 동성애 및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나머지 11퍼센트가 수혈받은 사람(거의다 1985년 이전에 수혈 받았음) 혈우병을 가진 소아환자, 이성에 남녀로서 성행위로 전염 또는 이유 불명으로 나타났다. 또 놀라운 사실은 1,059명의 유아가 이 병에 감염되어 탄생했다는 것이다. 성인 환자중 59퍼센트가 백인이고 소아 환자중 23퍼센트가 백인이다.(흑인은 각각 26, 53퍼센트)

그럼 AIDS란 병은 어떤 것일까?

이 병이 발견됐을 초기에는 Kaposi's Sarcoma(아주 드문 암)나 PCP(아주 드문 폐렴)에 걸리고 면역 결핍증이 있는 환자를 다 AIDS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이 군에 감염된 환자는 대개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맨 나중 단계에 처해 있는 상태를 AIDS라고 한다. 현재는 PCP같은 병(즉, Opportunistic infection)에 걸린 사람을 AIDS라고 하고 Kapssi's Sarcoma 유무로 AIDS를 진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Kaposi's Sarcoma는 HIV 감염된 환자에게 어느 단계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 암에 걸린 사람은 PCP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결핍증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HIV가 T4 Cell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T4 Cell은 임파구중의 하나로(임파구는 백혈구의 일종) Helper T Cell이라고도 한다. 이 임파구는 미식충구의 Quarterback같은 역할을 하며 만일 결핍되면 Macrophage등도 따라서 결핍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킨다. B Lymphocyte는 Natural Killer Cell(T8 Lymphocyte)를 만드는데 필요하며 체내에 들어온 균과 싸우는데 큰 일을 한다. 그러나 T4 Cell이 HIV에 의해 파괴되면 연쇄 반응이 생겨 체내 면역 기능을 마비시켜 기생충, Fungus, 바이러스, 결핵균같은 균과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HIV균이 T4 Cell내에 들어가 번식한 후 그 세포를 파괴하고 다시 나와 또 다른 T4 Cell에 들어가서 계속 번식한다. 그래서 HIV에 감염된 것이 의심될 때는 T4 Cell Count를 한다. 처음 HIV에 전염되었을때 T4 Cell Count가 떨어진다. 그후 약 6개월내지 1년후에 임파선이 커진다. 그 후에 피부나 점막에 다른 균에 의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전신에 퍼진다. HIV가 인체에 들어오면 그에 대한 항체가 몸에서 생산되는데(AIDS 피검사는 바로 이 항체 유무를 알아내는 것) HIV검사에 양성으로 나타나는데까지 약 6주내지 1년까지 걸린다. 이 기간중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나도 모르게 이병을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HIV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이 없으나 일시적으로 감기같은 증상, 즉 열이 있고 피로하고 임파선이 붓는수가 있다. 피부에 반점(rash)가 생길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일시적이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분열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이 시기를 제1기라고 한다. 그후 만성 임파선 비대증이 생기는데 대개 3년내지 5년 계속된다. 이것이 제2기이다. 제3기때는 T4 Cell Count가 현저히 감소되나(400, 정상은 약 800이상) 아직도 다른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 대개 18개월쯤 계속된다. 제4기에 들어서면 특정한 면역 반응이 감소됨을 볼 수 있고 T4 Cell Count가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제5기에 들어가면 모든 피부 면역 반응이 소멸된다. 아래에 Thrush(아구창)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계속되는 염증이 피부나 입안에 생긴다.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한 수포진이 입술이나 항문이나 성기 주위에 계속 생겨 아픔을 준다. 또 Candida Albicans와 같은 균종이 성기에 계속 생길 수도 있다. 입안에 흰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기간이 1년 내지 2년 계속된 후 제6기에 들어가는데 이 제6기를 AIDS라고 한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T4 Cell수가 예외없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대개 2년내에 죽는다.

이 시기에 Opportunistie infection에 걸린다. 즉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기생충(Toxoplasmosis-뇌를 침입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짐) Fungus(Cryptococcosis-뇌막염을 일으키고 간, 뼈등을 파괴) 바이러스(Cytomegalovirus-폐렴, 뇌염, 실명, 장염) 폐결핵등에 감염되어 죽는다. 그후 정신 착란증(dementia)에 걸려 생각과 행동에 이상이 오고 결국 걸을 수 없게 되고 대화가 불가능해 진다.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은 왜 Kaposi's Sarcoma나 Lymphoma같은 암에 걸리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암 세포를 감시하는 면역 기관이 마비되기 때문인것 같다.

한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 젊은 남자가 HIV에 감염된 사람과 성행위 한후 3개월후에 HIV혈청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후 6개월후에 만성 임파선 비대증이 생겼고 42개월후에 T4 Cell수가 많이 감소됐고 12개월후에 모든 면역반응이 소멸되었고 5개월후에 아구창 및 구강 염증이 생겼고 1년후에 Cytomegalovirus에 감염되어 실명했다. 결국 3개월후에 죽었다. 즉 HIV에 전염된지 83개월(약7년)후에 죽었다.

그럼 이 AIDS균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 바이러스는 Retrovirus라는 균으로 최근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Retrovirus는 RNA virus이다. Reverse transcriptase라는 효소를 갖고 있어서 유전 인자인 DNA를 만드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1970년경 Retrovirus는 원숭이에게 백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1980년에는 처음으로 Retrovirus가 인간에게도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것을 HTLV-I(Human T-Lymphotropic Virus Type I)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병은 일본, 아프리카, 카리비안의 어떤 시골에서만 나타났다. 이 HTLV-I은 백혈구 중 T-Lymphocyte를 파괴하여 면역 기능을 마비한다는 것을 알았다. 1981년에 생긴 첫 AIDS 케이스가 이 HTLV-I에 의해 생겼다고 추측했다. 연구결과 1983년에 AIDS라는 HTLV-I에 의한것이 아니고 HTLV-3 Virus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Virus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며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명명했다. 이 Virus는 옛날에는 발견 못했던 새 Vi-

rus이고 AIDS의 원인균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 발견되었던 HIV와 좀 다른 새 Virus가 또 생겨났는데 이것도 AIDS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래서 처음 Virus를 HIV-I, 두번째 것을 HIV-2라고 명명했다. 이는 Virus가 그동안 변형된 것이 아닌지 모른다.

HIV는 원래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들에게 있는 Retrovirus인데 이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 전염된것 같다. 중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생기는 AIDS는 HIV-I에 의해 생긴 것이고 그곳에 있는 원숭이들도 이 균을 보균하고 있음을 알게됐다.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생기는 AIDS는 HIV-2에 의한 것이고 그곳에 사는 원숭이도 인간의 AIDS와 꼭 같은 병을 앓고 죽는다. 그래서 AIDS는 원숭이로부터 인간에게 옮겨 왔다는 설을 인정하게 된다.

한때 중부 아프리카에 국한되었던 HIV가 왜 갑자기 세계에 만연되었는가? 초기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대개 시골에 살고 있었고 성도덕도 지금 같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도시 사람들의 성생활이 문란할 뿐 아니라 채혈, 수혈이 빈번하니 결과적으로 번창하게 된것이다.

AIDS에는 무슨 치료 방법이 없는가?

Opportunistic infection은 그에 적절한 치료가 있으나 HIV에 대한 치료는 아직 없다. 많이 알려진 AZT(Azidothymidine)라는 약은 1985년 2월에 소개된 것으로 그 작용은 이 Virus가 RNA에서 DNA로 전환하게 하는 Reverse transcriptase라는 효소를 저해시키는 일을 함으로 Virus의 번식을 막아준다. 임상경험에 의하면 말기에 접어든 AIDS환자의 생명을 약 1년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1987년 3월에 FDA(연방식품약품관리국)에서 이 약을 AIDS에 쓸수 있도록 인정했다. 그런데 이 약은 골수를 파괴해서 부작용이 심하다. ddC라는 약도 같은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로서 AZT와 같이 유효하나 2-3개월 쓰면 말초신경에 부작용을 준다. 그래서 현재는 AZT와 ddC를 번갈아 쓰는 임상 실험중이다. 그외 약 10가지의 다른 약들을 실험중에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으로 21년만에 자체회관에서 입주식을 시작하고 있다.



최주찬 회장의 인사



조원일 선관위원장이 89년도 회장단 및 이사의 당선을 선포하고 있다.



입추의 여지없이 꽉찬 입주식 광경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회장으로 당선된 한원섭씨와 현 이사장 백웅기씨의 손을들어 축하하는 최회장.



기념케익을 자르고있는 최회장, 김홍수 총영사, 김병섭장로.



김홍수 총영사의 축사



김병섭장로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힘차게 하고있다.

20여년 숙원이던 한인회관 입주식을 하던 날. 우리모두는 벅찬 흥분과 기쁨으로 한 순간을 보냈다. 이제 우리 자체회관에서 우리도 큰소리치며 "코리아"를 내세울수 있다. 단합과 화합의 장으로 쓰여질 우리들의 공동의 장소가 마침내 88년에 이루어 졌다.



점심 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입추식날 임원부인들이 배식을 하고있다



가장많은 건립기금을 약속한 김경완씨에게 감사장과 한인회 금 벤틀지를 달아주고 있다.

AIDS는 예방 접종을 못하는가?

현재 연구중에 있다. 역사적인 사실은 파 리대학의 Daniel Zagury박사가 자기가 만든 AIDS 예방주사를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접종했다는 것이다. 위대한 학자다..

AIDS test라는 것은 HIV에 감염된 환자의 피에 생긴 항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대개 이 검사가 양성으로 되기까지는 성행위로 부터 약 6주내지 12주 걸린다. 이 검사를 ELISA (엘리자)검사라고 하는데 만일 양성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검사를 또 한다. 이 검사에 양성 반응이 생기면 감염됐다고 진단한다. 만일 AIDS test에서 음성이면 다시 3개월후에 재검한다. 그래서 6개월까지 음성으로 나오면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도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다. 감염안된 사람에게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감염된 사람에게서 음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드물다.

AIDS가 알려진지 벌써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직장을 잃고 집을 떠나야 하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학교에서 거부당하고 어떤 장의사는 이런 환자의 시체 처리를 거부한다. 동성연애나 콘돔이니 하는 단어가 공공연히 쓰여지고 학교에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등.

지역적으로 볼때 미국같은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동성애나 마약 주사로 전염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10배 더 많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카리비안 같은 곳에서는 주로 여성을 통해 전염됨으로 남녀의 비율이 같다. 동양에는 거의 없는데 AIDS에 걸린 동양인들은 대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성행위로 전염되어온 것들이다. 미국에는 뉴욕과 상항에 많은데 상항 AIDS의 85%가 동성애 남자들이고 뉴욕 AIDS 36%가 마약 주사로 인한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알아둬야 할 일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 1) 내 가정을 교육하십시오. 특히 10대 자녀에게.
- 2) 남녀 젊은이들이 데이트할때 성행위는 자살행위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대방

이면 일단 HIV에 감염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되었어도 AIDS검사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기까지 6주내지 3개월, 6개월이 걸리니까요.

- 3) 꼭 성행위를 해야했다면 콘돔(Condoms)를 사용하십시오.
  - 4) 역시 성행위는 부부기간 이외에는 절대 금합니다.(기독교 십계명중의 하나)
  - 5) AIDS는 침(키스), 땀(악수), 소변이나 대변, 의복, 전화수화기등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 6) 마약 중독자들은 주사바늘을 늘 새것을 쓰십시오. 결코 남이 쓴 바늘을 또 쓰지 마십시오.
  - 7) AIDS에 걸린 부모님들은 아기를 갖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탄생후 몇년 살지 못하고 AIDS로 죽읍니다.
  - 8) 당신이 만일 동성연애하는 사람이거나 부부의 다른 사람과 성행위했거나 매춘부이면 AIDS검사를 꼭 받으십시오.
  - 9) 1978 - 1985년도 중에 수혈(Transfusion) 받으셨으면 꼭 AIDS검사를 받으십시오. 현재 수혈은 비교적 안전합니다.(1985년 이후)
- AIDS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에 문의해 보십시오.  
 KING COUNTY 587-4999  
 RENTON 344-6700  
 BELLEVUE 344-6882  
 TACOMA 591-6407  
 SPOKANE 456-3630  
 BREMERTON 478-5235  
 HOTLINES 1-800-272-AIDS

요약된 이 글을 읽으시고 계속 신문이나 TV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한인 가정에 비극이 없기를 바라며 필자가 영어를 많이 쓴데 대해 양해해 주시고 이 원고는 청탁받든지 3일만에 쓴 것이라 두서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참고(References) :  
 Scientific American, "What science knows about AIDS" p40-134, October, 1988  
 UW Medicine, "AIDS : A guide for the primary physicians", p4-65, 1987  
 FDA Drug Bulletin, "Special AIDS issue", p14-24, September, 1987  
 JAMA, "AIDS" p1367-74, '987  
 Understanding AIDS, by C. Everett Koop, Surgeon General, 1988

### 알아야할 회의 진행법

문희동(회칙개정위원)

#### 서론

각 단체 생활에서 회의 진행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다.

그것은 그 단체의 구성요건, 종류, 목적, 사업규모에 따라서 또한 조직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중에도 현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형성하게 되면서 회의는 꼭 존재한다.(토론의 필요성)

2인 이상 복수체제하의 가정으로부터 사회 공동 일반단체 또는 국가간의 단체상에서 꼭 있어야 할 규율(회칙,법률)과 회의 진행은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의의 진가와 진행 방법, 절차, 제반규칙등을 잘 인식치 못하고 진행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된다. 더더욱 그 회의 지도자가 회의 진행법조차 모르고 있을때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 회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기본적인 회의 진행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기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슬고하고자 한다.

그 회의 "리더"나 참석하는 자도 기본적인 회의 진행법을 알아야만 그 회의가 원만하고 완숙한 회의가 될것이고 성공적인 회의가 되며 발전하는 회의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회의이든 그 회의를 주관하는 "리더"(의장)와 회의 구성원인 회원(위원)으로 성립되지만 회의 진행하면서 상호 일정한 규율(회칙,세칙)을 통해서 선용하는 것이다. 물론 작은 단체들은 약식처리로 운영될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회단체, 친목단체를 대상으로 설명코저하며 회의는 회의 진행이 있고 그를 운영케하는 뒷받침의 회칙(세칙)이 존재한다.

이번 기회에 회의진행을 우선 다루고 회칙(세칙)작성은 차후 기회에 슬고하고자 한다.

#### 1. 회의의 뜻

각단체들이 회의를 함에 있어서 "리더"인 의장과 참석원들간에 지식, 경험, 의견등을 통합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절 협동하게

하며 같은 목적달성을 이룩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즉, 자기의견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상대방 의견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것에 두 의견 대립에 서로가 옳은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형성케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 1) 회의목적
  - 회의에 대한목적(동일목적)
  - 전체구성원에 토의가 행하여야 된다.
  - 참석원 전원이 납득하고 만족하며 결정 되어야 한다.(전원이 합의가 될수 없으나 다수결 원칙)
- 2) 회의원칙
  - 인신공격의 배제 원칙
  - 참석원 평등 원칙
  - 일 의제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 불계속 원칙
  - 일사 부재리 원칙

2. 회의의 구성원  
회의는 집단 토의를 하는 집단임에 그 구성원이 존재한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 원들이고 그 영향력도 대단하다. 그 회의 잘못된 점은 그 회의 리더인 회장이 진행 미숙으로 회의를 잘못 처리하거나 참석자들의 비협력으로서 원인이 있겠고 회의 의제를 잘못 선택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음을 보아왔다. 일반적 구성원은 다음으로 알 수 있다.

- 1) 회의 지도자인 의장 (회장 : 사회자)
  - 2) 그 회의 회원 (참석자)
  - 3) 회의를 참관하는 읍서버 (설명자, 자료 제공자)
  - 4) 의사 진행의 기록원 (서기, 총무, 간사장)
3. 회의 진행 순서  
회의를 주관하는 집행부는 회의장소, 일정시간, 의제, 안전등을 참석원(회원)들에게

사전 연락(홍보)하고 회의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의장(회장)은 개최(개회)선언
- 2) 회원 정족수 확인으로서 성원 여부와 회의 소집 목적 설명
- 3) 그간의 경과보고 및 회의록 낭독(서기, 총무, 사무총장)
- 4) 재정담당의 회계보고사항(일반적 정기 총회시)
- 5) 전 회기때의 미비사항 처리 및 경과처리
- 6) 새로운 의사(안건, 의제)를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안건처리
- 7) 폐회선언

4. 참석자(회원)가 유의할 사항  
 모든 회의때 참석자들의 태도가 중요하고 회의에 협조하는 뜻과 태도로 회의를 진행시키고 유도해야 한다.

특히 사회자(의장)지시에 순응 복종의 자세로 멤버의 일원으로서 회칙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회원)의 의무

- 1) 자기 의사를 진술할 경우 신속 정확하고 회의에 이익이되는 발언과 회원 전체가 동감하는 발언이어야 한다.
- 2) 자신의 옳은 지혜를 참석원에 알려 전원이 납득하는 발언.
- 3) 타인 인신 공격, 그 단체에 손상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 4) 참석자들은 회의 규칙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분명한 발언(토론)에 적극 협조하고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책임한 발언은 금물이다.
- 5) 남의 발언을 존중,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자기 의견을 발언 할 수 없다.
- 6)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발언은 그 회의 의제 범위내에서 발언하며 발언권은 사회자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함으로써 효

력이 있는 것이다.

5. 지도자의 역할

어떠한 회의든지 구속력을 갖고 있기에 분위기가 늘 딱딱하다. 또 신경들이 예민한 가운데 진행됨으로 분위기에 유의해야 한다. 서로간의 화목과 명량한 분위기속에서 의견 교환이 잘 융화되도록 지도자(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의 진행에 참석자들이 적극성을 갖도록 또 분위기를 잘 선용하도록 멋진 사회를

함으로써 그날의 회의 성공여부의 책임이 지도자 역할인 것이다.

지도자는 다음의 사항을 알아야 한다.

- 1) 회의 준비(회의 장소, 분위기, 자료준비)
- 2) 회의 내용을 검토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
- 3) 질문자의(발언권자) 의도를 신속히 파악, 정확한 답변을 할 것
- 4) 무능력자란 낙인을 받지 말아야 한다.
6. 토의 안건

토의란 일반적으로 회의 참석자(회원, 위원)들간의 언어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참석원 상호간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거기서 검토 평가하고 분명하게 정확히 분석, 결론을 얻는 과정이다.

토의는 다음 같이 구분된다.

- 1) 제시적 발언 : 제안설명, 보고서 작성 설명 등
- 2) 질의적 발언 : 의문점, 질문사항, 분석 요구 등
- 3) 응답적 발언 : 질문에 답변, 수정, 개정 사항 등

위와 같은 토의에서 찬·반의 구분이 되지만 그때 의견을 하나로 요약 통합될 때 그 토의는 성공한 회의가 된다.

7. 회의 진행(개시)

(1) 회의내용

- 1) 상정된 의제 발표 : 회의 리더(의장)는 그날 회의의제를 제시 설명하고 안내자료를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그 회의 목적인 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 2) 상정된 의제는 상호 질문 토의를 시작하고 좋은 의견에 성립케하고 신속히 집단 결론을 찾아내어 본래 목적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
- 3) 새로운 의제가 상정되면
  - a 발언권을 얻는다-동의제안(원동의)-동의제청
  - b 사회자(의장)가 동의선포-토론으로 질문, 수정한 후-표결에 부친다.
  - c 의장이 표결의 결과 발표-다수에 의결된 사항은 곧 결정되는 것이다.(찬·반결정)

(2) 회의 진행 내용

- 1) 발언권 -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한다.(발언권을 얻지 않은 것은 효력 없음) 발언권을 얻은 회원은 자기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발언은 신속, 정확한 용건, 회의에 이익되는 발언이어야 하고 발언중에는 타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

- 2) 동의제안 - 발언권자는 동의를 제출하고 동의내용을 설명한다. 의장은 동의 제안에 대한 적법 여부와 "재청"여부를 빨리 확인한다.(동의 종류는 긴급동의, 원동의, 주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우선동의 등등이 있다)
- 3) 재청 - 발언권과 동의가 제출되면 의장은 참석자들에 이에 대한 "재청"유무확인하고 선언한다. 참석자(회원) 중에서 누구든지 "재청이요" 소리가 나면 그 동의는 의제로 상정되고 의제로서 회의가 진행되지만 반대로 "재청"자가 없을 때는 그의 동의는 상정되지 못한다.

4) 동의 선포 -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곧 동의 재청이 있음을 알리고 xxx씨가 제출한 의안을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선포가 있어야 한다.

또 회의 서기에게 기록토록하며 후일 증명케 한다. 즉,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이때 이 동의는 회기분이 되는 동의임에 "원동의(주동의)"라 말한다.

(3) 토의(토론)의 경로

- 1) 토의선포 : 회의에 상정된 의제로 참석자들에 그 내용을 알게한 후 찬·반의 토론을 거친후(토론한 후) 표결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정된 내용을 충분히 전원이 알고 처리할 것이며 의장은 반드시 토의선포가 있어야 한다.
- 2) 토의와 순서 : 참석자중 찬·반 토의가 시작되면 의장은 회의 순서상 찬성자-반대자순으로 발언시켜서 회의 진행의 묘미를 살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반자의 주장 근거가 어떤것이나. 회의 주제가 정확한 토의인가를 확인한다. 타인, 자기 주장이 본래 목적과 일치하지 못할때 토의는 중단하여야 되면 진실된 회의 의제와 단체의 이익, 회원의 이익이 앞서는 주장 찬·반의 토의여야 한다.

3) 수정안 : 원동의에 대체로 찬성하나 그 내용면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이 안에 재청이 있으면 즉시 질문,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서 의결한다.

4) 재수정안 : 수정동의에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을때 이를 "재수정동의"라 한다. 이 동의안에 대한 더 이상의 수정은 할 수 없다.(이 제안은 보통 일반 회의에서 모르고 잘 사용치 않고 있음)

그리고 표결시에는 재수정안-수정안-원안의 역순으로 체결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에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재수정안,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을 때 한하여 마지막 원안을 체결하는 것이다.

(4) 표결선포와 방법

그간 의제의 토론을 종결시키고 의장은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의장은 의안의 표결을 선포한다.

표결방법도 회의 찬·반에 의해 결정됨이 원칙이다.

- 표결방법은
- 만장일치의 법칙
  - 발성(구두)의 방법
  - 거수, 기립방법
  - 점호의 방법
  - 투표의 방법(기명, 무기명)-가장 합리적 방법

(5) 표결 결과 발표

의장은 서기(종사원)에게 찬·반의 각인원수를 확인 시켜서 수가 많은 쪽을 채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찬성표를 먼저 발표하고 반대표를 발표한다. 그리고 "누가 누가" 제안한 의안이 가결(부결)되었음을 분명, 확실하게 의장이 선포하고 회의록에 기록토록 종사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또 의장은 이때 회칙(세칙)에 명시된 표결정족수(결정수)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폐회(산회)

모든 회의 절차가 끝나면 의장은 폐회선언을 해야 한다.(폐회 시간이 되어도 참석원중 시간 연장 동의하면 의장은 참석원에게 의논하여야 한다)

또 참석자중 누구든지 폐회 동의를 발의하면 체결 산회하는 것인데 일반 단체(친목회)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다.

결론

회의는 각인각색의 의견을 가진자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볼수있다.

단체를 구성해서 지내는 과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찬·반 두 대립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해서 대다수를 만족시키고 소수를 함께하여 하나의 목적된 의견을 확립 정리함이 회의의 본 취지임에 최소한도의

시간과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 단체가 잘 운영되려면 모든 회의가 잘 성립되고 훌륭한 회의였나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 의장과 참석자 서로서로가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올바른 회의진행으로 연결될때 그 회의는 발전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세분의 종류와 구분도 많이 있으나 그런것들은 일반적인

친목 단체에서 잘 이용되지 않기에 모두 생략되었음을 부연하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이다.

줄필을 편집하신분과 활애하신 최회장님, 정총장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한인회 발전을 기원하면서...

(끝)

## “신비의 환약”

- |                  |                |                  |
|------------------|----------------|------------------|
| ◆당뇨병약 (No.1000)  | ◆간암약 (No.3001) | ◆간장약 (No.009)    |
| ◆살빼는약 (No.5000)  | ◆치질약 (No.8000) | ◆마약끊는약 (No.107)  |
| ◆담배끊는약 (No.4000) | ◆심장병약 (No.18)  | ◆간염약 (No.207)    |
| ◆정력회춘약 (No.1111) | ◆간경변증약 (No.17) | ◆기관지천식약 (No.306) |
| ◆술끊는약 (No.3000)  | ◆위궤양약 (No.15)  | ◆신장약 (No.106)    |
| ◆위암약 (No.5007)   |                |                  |

## 인빈당전재한의원

한의학박사 정재영

(206) 588-1111

9312 S. Tacoma Way #115  
(코리아나 플라자)  
Tacoma, WA 98499

새주인에 새경영방식으로  
새롭게 모십니다.

『보다신선하고 새로운 상품을 대량 구비하여 탐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져 하오니 앞으로 많은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탐스가족 올림

회소식 : 한국식 델리개시  
김밥 · 오뎅 · 단팻죽등등



361-7094

15033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탐스마켓

## 북한에서 띄우는 편지

황동규  
(배구협회회장)

「제1신」

대동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J형!

천하를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소원했던 진시왕의 장엄한 모습이 눈에 선하고 조선족 안내양이 들려준 만리장성에 얽힌 애절한 비화가 아직 귓전에 맴도는채 나는 조선민항의 날개속에 몸을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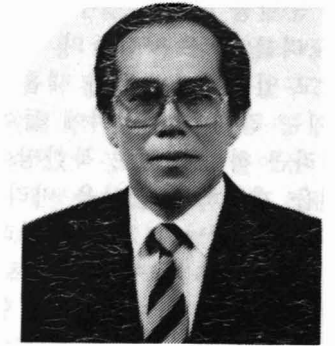
내가 정말 내 조국의 분신인 북한땅을 가는구나 하는 기대와 긴장속에서 비행기는 북경공항을 이륙한 후 그 기수를 평양으로 돌리고 그리 높지 않은 고도로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산천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고 그 옛날 고구려의용맹스런 군사들의 함성과 말굽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속에 압록강을 굽어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시간 반 가량이 순식간에 흐르고 이제 서해바다 수평선에 수놓은 일몰의 아름다운 광경을 사진기에 담고 있노라니 기체는 구비치는 대동강변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체의 오른쪽 창너머로 썰물의 서해 바다와 지금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서로 만나고 왼쪽 창밖에는 평양성의 광활한 오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 옵니다. 아! 여기가 바로 1천만 이산가족의 단절의 아픔과 한이 얽힌곳, 두고온 북녘땅 평양이란 말인가! 반만년의 영고성쇠와 애환이 담긴 역사속에 이 세월을 스쳐간 우리 조상들의 열과 숨결을 느끼며 벅찬 감회에 가슴이 설레이는 순간 참으로 가깝고도 먼땅 멀고도 지척인 분단의 땅 평양성에 나는 그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형!

나는 이 순간을 정말 잊을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광 비자를 받고 북한땅을 내딛은 제1호의 행운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43년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지금 나의 이 첫걸음을 내딛는 이 땅위에 넘치는 하늘의 축복이 내려서 장차 자유왕래의 염원이 실현되고 나아가서 이 일이 민족통일이라는 대단원의 장으로 승화하는 그날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순안 비행장을 떠나 평양 고려호텔에 그 여장을 풀었습니다.

1988년11월14일  
평양에서



「제2신」

평양에 첫눈이 내립니다.

J형!

두어시간 눈을 붙인 평양의 첫날밤이 이제 24층 유리창문 밖으로 밝아 옵니다. 가지고간 "레디오"다이얼을 아세아 방송에 맞춰 놓았습니다. 찬양이 울려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전파를 타고 고려호텔 2422호실에 울려 퍼집니다.

귓전을 울리는 그 영적파장은 내 마음에 강하게 와 닿은듯 어느듯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형!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고 보니...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소담한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그 눈사이로 준비한 고층건물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깨끗하고 확트인 길에는 띄엄띄엄

차들이 눈밭을 헤치며 질주하고 갈색의투에 흰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의 행렬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롭고 신기하게만 보이는 광경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북한땅이기는 하나 새벽길을 재촉하는 군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느듯 만남의 기쁨에 설레이고 정과정이 흐르는 온기속에서 참으로 오랜 “그리움”이 모두 녹아 버리는 듯 합니다.

J형!

우리를 태운 3대의 벤츠차들은 천리마 운동탑을 옆에 끼고 개선문을 지나 대동강변을 달립니다. 눈밭이 대동강변을 날고 말없는 보행자가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거리에는 인민 의사당 인민대학숙당 만수대에 술극장 평양실내체육관 그리고 학생소년궁전 등... 국적국적한 건축물이 제각기 특유한 멋을 지니고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수상이 12살까지 살았다는 초가집이 있는 만경대를 돌아본 후 대동강변에 화강암으로 세워졌다는 높이 120m나 되는 촛불모양의 주체탑에 올랐습니다. 주체탑의 현관에는 1백여 국가 수반들과 단체들이 보냈다는 대리석 석판들이 총총히 박혀 장식되고 있었습니다.

남의 간섭 받지 않고 내 멋과 내 식으로 살겠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주체탑의 얼굴에 박혀있는 100여개의 대리석 석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주체사상이며 누구를 위하여 이 주체탑의 햇불은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문을 여십시오. 평양 성문을 활짝 열고 형제를 맞이 하십시오. 보고픈 형제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사상이야기, 체제이야기 다 집어 치우고 그 옛날 어린시절 동네앞 개울에서 물장구 치던 한여름의 추억과 눈밭 치던 어름판에서 팽이치던 시절에 얽힌 설날의 이야기로 이 밤을 세워 봅시다.

J형!

우리는 오늘의 평양 첫나들이를 마친후 금강산 국제무역개발 회사에서 베푸는 환영 만찬회에 참석하여 유익하고 평안한 여행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만찬이 끝난후 방에 돌아오니 이제는 안정감이 감돌고 평양생활도 첫날보다는 제법 익숙해 지는 듯 합니다.

잠을 청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떠날때 아내가 준비해준 선물을

몇가지 싸들고 이제 구면이 되어버린 평양의 사나이들이 목고있는 방을 찾아 노크하니 그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1988년 11월 15일  
평양에서



「제3신」  
금강산의 돌을 주웁시다.

J형!

“나는 고려인으로 태어나서 금강산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야”라고 일찌기 중국의 한 시인이 읊었던 민족의 영산이요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을 가기 위해 맑게 개인 가을날 오후 우리 일행은 평양을 떠나 평원간의 4차선을 3대의 차로 달려갑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누가 먼저 불렀는지도 알 수 없는 차안의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합창입니다. 아니 민족의 대합창입니다. 합창이 끝나고 갑자기 조용해진 차안에서 멀리 산과 들의 가을 풍경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신비의 땅이요 두고온 산하 북한땅이라는 실감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살던 고향 남쪽 나라의 시골 풍경이요, 쓸쓸한 늦가을의 정취 그대로입니다.

J형!

눈을 떠보니 해는 이미 동해 바다의 수평선에서 서너뿔 가량이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구름 한점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공해라곤 없어 보이는 동해바다의 새벽공기가 싱그럽습니다.

송도원 해수욕장의 하얀 모래위를 거니러 왔습니다. 성수기를 지난 퇴색된 나무 보트들이 줄지어 올려있고 눈같이 하얀 모래밭에 수정알같이 맑은 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J형!

금강산 가는 도로확장공사로 길이 막혀 금강산 관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걱정에 여관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평양으로 부터 희소식이 날아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특별 헬리콥터를 보내 준다는 것입니다. Wonderful! 환성이 터져나오고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다음의 전화를 기다리며 원산항구에 나가 카메라앞에 포즈를 취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장소는 명사십리 제2신이 날아왔습니다.

J형!

우리를 실은 조선민항소속 “헬리콥터”는 여름의정열과 낭만이 있었던 곳 명사십리를 이륙해서 고도 700m를 유지하고 동해안을 따라 일로 금강산으로 날아갑니다.



눈부신 햇살위에 아름답게 그어진 해안 곡선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고 왼쪽 창 너머로 홀로 또는 쌍둥이와 같이 섬들이 물위에 떠있고 오른쪽 창밖엔 나지막한 산들과 바둑판같이 잘 정리된 농토가 눈아래에 깔립니다. 이럴때 문필가들은 흔히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나 나는 일지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탄과 찬사로 1시간10분이 순식간에 흐르고 기체는 금강산 입구 고성군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우리 일행이 대기하고 있던 썰매 3대에 분승한 15분후 오정리에 자리잡은 금강산 호텔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J형!

단풍이 모두 지고 사람이 없는 금강산은 한없이 쓸쓸해 보이지만 산이 준령하고 멋이 있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절경이요 산에 산마다 기암 절벽입니다. 만물상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오르면 숨이 차고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안내자의 바위마다 얽힌 사연과 전설을 들으며 한 시간 가량 올라왔으나 만물상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니 4시가 좀 넘었고 깊은 계곡에는 벌써 그들이 질게 깔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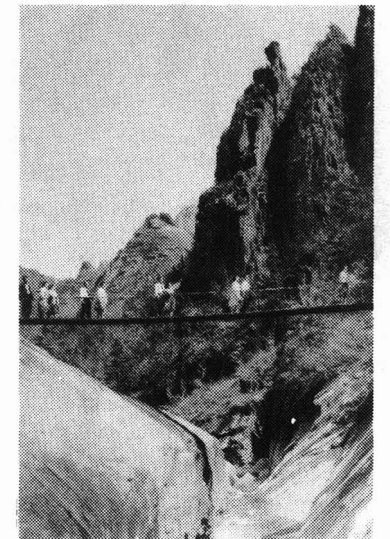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우리 일행은 만물상 정복을 포기한 후 금강산 온천장에 몸을 담그고 오늘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J형!

오늘은 용 아홉마리가 올라가는 듯한 형상이라는 구룡폭포의 장관을구경한다고 합니다. 원래 금강산은 철에따라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지금은 단풍도 다 졌으니 풍악산도 아니요 그렇다고 개골산의 설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강산에 오자마자 그 준엄한 산세에 압도당하고 절묘한 모습과 신령한 기상에 그저 머리가 숙여 집니다.

구룡폭포까지는 아직도 두시간쯤 더 올라 가야한다는 지점에 이르렀을때 우리와 동행하던 금강산 개발회사 친구들이 이제 그만 내려가야 한다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유인즉 어제 우리를 실어다준 “헬리콥터”가 이미 와서 1시에 떠날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 한그릇만 마시면 40년이 젊어져서 가지고 간 지팡이를 잊어 버리고 돌아온다는 망장천(忘杖泉)까지는 가야한다고 버텼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J형!

우리 일행은 오늘도 미완성의 금강산 등반을 끝내고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기암절벽의 사이로 계곡을 이루고 계곡의 하안 돌위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물이 많을까 하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개천에 깔려 있는 예쁜 돌을 보는 순간 나는 시애틀을 떠나기 바로 전날 만났던 C형의 부탁이 생각났습니다.

“황선생님, 북한에 가시면 금강산의 돌 하나만 갖다 주세요.”

금강산의 돌이라! 산에 깔려있는 그 혼한

돌을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왜 금강산의 돌을 갖기를 소원하는가를 나는 묻지 않았습니디. 왜냐 하면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지요"하고 말한 약속이 생각나서 나는 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줍다보니 북한이 고향인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20여개의 돌을 주어 들고 산을 내려 왔습니다. 돌의 선물! C형은 금강산의 돌을 원했고 떠나기 전에 전화를 주신 M전도사님은 묘향산의 흙한죽을 청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만이 아는 민족의 한이 있고 염원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입니까!

J형!

금강산의 돌을 갖고 싶은 그 순수한 바람이 바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소망이요, 묘향산의 흙한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다음에는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금강산 등반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금강산의 돌 하나를 더 주어 들고 산을 내려 왔습니다.

1988년 11월 17일  
금강산에서

# GRAND OPENING \* free gift



- 남녀헤어컷 ●스트레이트 파마
- 염색 ●얼굴맛사지 ●신부화장

(206) 783-1373

영업시간 : M-F 9:00AM ~ 7:00PM  
SAT 9:00AM ~ 6:00PM

7813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가을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머리에서...

소피아미용실

## 한인사회동정

### 1. 재향군인회 퍼레이드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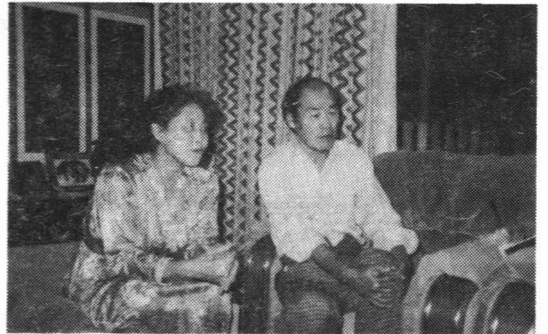
워싱턴주 한인 미 재향군인회는 첫번째 행사로 어번시에서 벌어진 향군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향군의 날에 열리는 연례행사로서 어번시 100주년 기념 축하 행사로 현역 군인은 물론 2차대전 및 한국전 월남전에 참여했던 팀들 그리고 고등학교 밴드팀등 약 150여팀이 참석하기도 했었다. 퍼레이드가 끝난후 ELKS 회관에서 의 오찬 파티에서 한국 향군의 처녀 출전을 치하 받기도 했다.

### 2. 한인회관건립기금으로 3만불 회사한 김경완씨 내외

어번에 사는 김경완씨 조인실씨 내외가 한인회관건립기금으로 거금 3만불을 회사하기로 약속해 교민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10년전 이곳에 이민을 온 김씨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시애틀 한인회 회관건립기금운동 소식을 듣고 기꺼이 거금을 회사했다.

한인회관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어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하고 싶었는데 마침 회관기금을 모금한다기에 작은 성의를 표한다고 겸손을 잊지 않아 주위로 부터 훌륭한 결단이라며 칭송이 대단하다.



### 3. 음악인동우회 가곡의 밤 성황이뤄

워싱턴주 교민사회의 문화생활의 일환으로 해마다 치뤄지는 음악인동우회의 가곡의 밤이 금년에도 성황리에 치뤄졌다.

워싱턴주 음악인동우회(회장 김영희)와 태평양화학의 주최로 열린 이날은 대부분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하는등 뜻깊은 가곡의 밤이 되었다.

UW에서 교민 6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에버그린 합창단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시작으로 20여곡의 주옥같은 가곡이 선사되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고향의 봄과

오빠생각을 합창해 가을 고향을 그려 보기도 했다.

### 4. 교민전체 참여하는 상담소로...

한인생활상담소는 15일 오후 7시30분 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각 단체장은 물론 그간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등 많은 교민들의 축하속에서 김홍수 총영사는 「1만9천불이 모인 기금은 용기와 새힘이 될것이라고 말하기도...」

또한 소니아 김 소장은 지난 5년간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았으나 그것은 교민의 10%밖에 안되는 숫자이며 앞으로는 교민전체가 봉사도 받고 봉사도 하는 그런 방식의 운영이 됐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성악가 한혜숙씨가 이혜연 연주자의 반주로 선구자를 추가로 부르기도 했다.

### 5. 내년 1월20일경 정기총회 모일 예정

한미무역협회는 8일 정오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20일 콜롬비아 타워 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회장인 로버트 베스커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런치언 미팅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사퇴한 이사 보충문제 또 한미친선협의회(회장 존 스펀만)과의 관계 정립등을 논의했다.

한미무역협회는 이 지방 교포 무역인및 주재원들과 무역관련 미국 인사들로 구성, 지난 84년 창설되었다.

### 6.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시애틀및 타코마 지역 7개팀이 참가한 제2회 축구협회기 축구대회에서 타코마 백호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12일 오전9시부터 그린레이크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적은 1위에 타코마 백호팀 2위 북부 시애틀 3위 무궁화, 축우회팀이 각각 차지했다.

### 7. 상담소 신입 소장에 윤승자씨 선임

한인생활상담소가 11일 정기총회를 갖고 소장에 윤승자씨 부소장에 윤부원씨 이사장에 김문원씨 부이사장에 박귀희씨를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윤소장은 12월전까지 임원진 구성을 끝마치겠다고...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2월9일 6시반

차이나 게이트에서 부부동반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기로 했다.

### 8. 시애틀·대전시 자매결연

수년간 추진되어온 시애틀시와 한국의 대전시간 자매결연이 본국 내무부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고 시애틀 총영사관이 9일 발표했다.

총영사관은 김현욱 국회 외무분과위원장의 주선으로 수년전부터 양 도시간의 서신이 왕래되었다고 밝히고 찰스 로이어 시애틀 시장과 시 의회가 대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면 한국측에선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해 지금까지 사실상 지연됐었다고 말했다.

### 9. 새축협회장에 최학기씨

워싱턴주 축구협회는 20일 린우드 바베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북부 시애틀팀의 최학기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씨는 타코마 백호팀, 페드럴웨이 축우회, 벨뷰 조기축구회팀에서 추천하는 3명을 부회장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엔 무궁화팀의 이석진씨가 선출, 최씨는 임원및 회원의 마음과 성의를 모아 협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0. 김종원목사(한인연합감리교회시무)

김종원목사의 송별예배가 지난 11월 20일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이 지방 목사및 유지, 많은 교민들이 참석,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하고 새 부임지에서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했다.

김목사는 79년 7월 이곳에 부임, 당 교회를 이끌어 가다 연합감리교회 연회감독의 임명에 따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로 부임한다.

### 11. 상의회장에 권오문씨

워싱턴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권오문씨가 마지막 순간에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되었다.

권씨 단독 입후보 당선에 전회장 고봉식씨는 현재 이사장이고 작년에도 회장 출마의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는 의욕적으로 잘 운영해 갈것 이라고 말했다.

## 한인회 소식및 공지사항

### 1. 추석맞이 경로잔치 성대히 치뤄

지난 9월24일 오전10시부터 시애틀 한인회와 그로서리 협회 공동 주최로 경로잔치가 최농장에서 열렸다.

어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마음으로 또 고유 명절인 추석을 기하여 잔치를 마련했다. 또한 이날 최주찬 한인 회장은 이번 명절을 위해 길러온 통돼지를 회사 하기도 했으며 그로서리 협회에서 제공한 음료수 맥주등 또 진로에서 제공된 진로 소주로 고향의 맛을 흠뻑 즐기기도 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4백여명이 참석 밴드에 맞춰 춤을 추며 장기자랑등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장기대회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등 김기남 2등 이영호 3등 한영화 단체상 스노호미시 노인회 행운상 김천순.



### 2. 한인회 회칙 개정

시애틀 한인회는 회칙 6조에 명시된 "본회의 사무소는 워싱턴주내에 둔다"를 "본회의 사무소는 시애틀에 둔다"라고 고치는등 현실과의 차이점을 대폭 보완 수정했다.

11월 31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는 이밖에도 회원 자격을 "본 회의 회원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시민"을 "본 회의 회원은 킹 카운티및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이상 영주권자및 시민권자에 한한다"라고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임시총회는 회장 선거는 2월 중순에 하며 감사 2명도 회장단 선거와 동시에 치루고 총회는 3월에 개최토록 결정했다.

또한 새 회칙은 89년부터 효력이 발생케

되는 바 새 회칙에 따라 이사수는 26명 선관위원은 7명 정기총회및 임시총회 정족수는 50명으로 각각 증원 되기도 했다. 임시총회 소집요건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사회 의결이 있을시,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때로 각각 규정하기도 했다.

### 3. 한인회관 「오픈 하우스」가져

시애틀 한인회(회장 최주찬)은 11월6일 오후3시부터 조지타운 소재 새 한인회관 건물에서 오픈 하우스를 가졌다.

회관 구입 절차및 계약서 내용 공개와 기타 질의 응답을 위한 이날 오픈 하우스에는 48명의 관심있는 교민들이 참석했다.

최회장및 건축 소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회관 구입 경위와 5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고 경과 보고후 질의 응답식으로 그간의 궁금증을 풀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회관 구입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고 최주찬 회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 4. 한인회관 입주식및 정기총회 치뤄내

한인회 정기총회를 겸한 새 회관 입주잔치가 11월 19일 정오 단체장들을 포함 3백여명의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존 서버그 부지사도 참석하는등 성황을 이루었다.

약 2시간의 입주 기념 행사는 기념식, 리셉션및 오찬, 에버그린 합창단의 축가로 진행되었으며 약 1시간의 정기총회는 사업및 재무보고 새 회장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주찬 회장은 "내 생애에 가장 기쁜날이고 보람된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펴 려하기도 . . .

회관구입을 위해 열심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 . .

또한 김홍수 총영사는 숙원이던 회관구입은 우리 전체의 영광이라며 사후 관리에도

한인 모두가 참여 내집같이 관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입주식이 끝난 후 곧장 정기총회로 들어갔는데 정기총회에서 조원일 선거관리 위원장은 후보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그러던중 유지들의 추대로 한원섭씨가 등록, 하자없이 당선됐다고 공포했다.

신임회장 한원섭씨는 인사말에서 회관구입에 헌신적으로 수고한 최 전회장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오는 새해에는 단결과 융화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 5. 한인회관 전화번호및 주소변경

새로 구입한 한인회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게 된다.

새 회관주소및 Mailing Address : 1200 S. Angelo St. Seattle, WA 98108

새 회관전화번호 : (206)767-8071

변경일시 : 1988년 11월 28일부터

기타 : 11월 28일 이후부터 P.O.Box및 구 전화 번호는 자동폐쇄됨.

### 6. 1988년 11월 19일

새 한인회관에서 입주식및 정기총회 가지다(새 회장에 한원섭 부회장 김영수,이동훈 이사진 김형달, 이순모, 김홍렬)

### 7. 1988년 12월 17일

88년 임원 이사 종무식및 망년파티로 신·구 임원 이사 상견례 종무식 망년 파티 파티 가지다.

**\* 제24회 서울 올림픽개막식에 최주찬회장 등 일행 참석**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위풍도 당당하게 서울 올림픽이 예정대로 지난 9월 17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꽉 메운 수많은 관중들의 우렁찬 박수와 오색 찬란한 카드섹션, 우리 고전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160개의 선수단이 그리스팀을 선두로 입장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공중 낙하 부대의 쇼가 펼쳐지는가 하면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민속 놀이등이 2시간반에 걸쳐 펼쳐졌는데 일목요연하고 실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스 게임을 보면서 관중들은 박수 갈채를 보였다. 만약의 우천을 대비한 우비등을 큰 비닐백 속에 준비해 놓고 이어폰, 호각, 프로그램, 모자등을 일일이 마련한 점등은 관객을 세심하게 배려한 충분한 대우였다. 세계 4위에 입상한 우리 조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크게 한걸음 내디뎠고 한국을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시애틀 지역에서는 최주찬회장, 정병국사무총장, 김종만 이사, 리아 암스트롱여사부부, 최경수 전이사장부부등 20여명의 얼굴들이 보였다.



**\* 한인회 · 시애틀 총영사관 합동 간담회**

지난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신라식당에서는 시애틀 총영사관의 주선으로 한인회 임원 이사 20명과 총영사관의 김홍수 총영사와 3명의 영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그동안 총영사관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서로 질의 응답식으로 속 시원하게 풀었다. 김재순 국회의장 일행의 비공식 방문때 있었던 오해를 푸는 한편, 앞으로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합동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협조를 다짐하기도 했는데 최 회장과 김 총영사와의 굳은 악수로서 합동 간담회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 끝났다.

**\* 역대 한인회장, 이사장및 임원이사 합동 간담회**

지난 11월 17일 오후7시부터 신라식당에서 한인회 역대회장, 이사장및 유지, 임원이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도 한인회장에 한원섭 현부회장이 추대되었고 부회장에는 김영수 현그로서리협회장과 이동훈 변호사가 추대되었다. 그동안 회장단 입후보자가 없어서 두차례나 등록일을 연기하는등 고역을 치렀는데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한원섭씨가 추대되었고 또한 본인도 수락을 함으로써 고전을 겪던 89년도 한인회장단을 출범시켰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회장을 하기보다도 내 놓기가 더 힘들다”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 한인회관 건립 소위원회 모임**

그간 7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현 한인회관 건물을 구입하기로 지난 11월 11일 모임에서 최종합의를 보았으며 수차례에 걸친 현 건물답사에서 소위원회 위원 모두는 만족한 결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 사이 일부 언론에서 공청회 운영하는 기사와 인터뷰등의 연이은 오보로 인하여 교민들이 의혹을 품게도 되었으나 11월 6일에 있는 오픈 하우스때 소위원들이 계약서등을 공개하고 질의에 응하여 모든 의문점을 말끔히 씻었다. 지난 11월 15일에 에스 크로를 크로스함으로서 본 건물은 명실상부한 한인회 소유 건물이 되었다. 마지막 소위원회 모임에서는 회관 운영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직등에 관하여 논의했는데 운영위원은 21명 정도로 하고 반수는 임기 1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기 2년으로 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이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현 소위원회 위원은 모두 운영위원으로 자동 연임되며 매해 한인회 임원이사등으로 6명을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건립기금 헌납자>**

이희덕	\$20	곽행순	\$5.00	한정열	\$100.00
임종원	\$100.00	배유위	\$5.00	오운 Nuhse	\$100.00
김정태	\$50.00	이영수	\$5.00	박필주	\$5.00
리아암스트롱	\$1,000.00	한인장로교회	\$300.00	김성원	\$2,000.00
블링협회	\$150.00	경로회(김길봉회장)	\$100.00	정관봉	\$20.00
권태영	\$100.00	전용원	\$1,000.00	전계상	\$30.00
류재관	\$100.00	스노호미쉬노인회(2차분)	\$91.00	강동언	\$20.00
김동진	\$100.00	정오Nuhse	\$300.00	안선균	\$20.00
임인택	\$100.00	(노스게이트장미꽃집)		윤부원	\$20.00
김용준	\$50.00	홍진표(홍목수)	\$50.00	김영수	\$500.00
양만복	\$55.00	한학기	\$100.00	정철식	\$20.00
먼로정자	\$50.00	한지영	\$100.00	이광술	\$20.00
양치영	\$50.00	한영민	\$100.00	이종찬	\$20.00
모명옥	\$30.00	송종호	\$100.00	이신남	\$20.00
이순덕	\$20.00	이범철	\$10.00	홍차분	\$10.00
류옥진	\$20.00	이무상	\$10.00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2,000.00
박봉식	\$10.00	김정수	\$20.00		
김옥희	\$10.00	임광희	\$500.00		
문복득	\$10.00	나까무라	\$100.00		
조후난	\$5.00	안정무	\$50.00		
서옥순	\$5.00	유순희	\$300.00		
김영자	\$5.00	장승완	\$100.00		
김춘만	\$5.00	안병엽	\$20.00		
이귀래	\$5.00	안철	\$30.00		
박다경	\$5.00	김서은	\$20.00		
최씨	\$5.00	김기욱	\$20.00		
최채선	\$5.00	김영일	\$20.00		
송무임	\$5.00	이춘열	\$20.00		
이정례	\$5.00	전영환	\$20.00		
유금례	\$5.00	김인국	\$100.00		
김보배	\$5.00	이삼량	\$20.00		
박수동	\$5.00	김재호	\$300.00		
홍순호	\$5.00	윤인환	\$50.00		
최영순	\$5.00	이원휘	\$50.00		
허옥련	\$5.00	정철식	\$1,000.00		
김안동	\$5.00	이광술	\$100.00		
송성녀	\$5.00	이종찬	\$500.00		
장금순	\$100.00	김인배	\$100.00		
배덕규	\$5.00	워싱턴주 체육회	\$500.00		
선옥임	\$5.00	이신남	\$20.00		
백정기	\$5.00	김효용	\$20.00		
김정운	\$5.00	뉴욕산악회	\$50.00		
김영호	\$5.00	변종혜	\$50.00		
차득춘	\$5.00	한미식품	\$2,000.00		
이종소	\$5.00	이옥순	\$100.00		
임철재	\$5.00	한일각	\$1,000.00		
박필주	\$5.00	김강석	\$20.00		
강순배	\$5.00	이승언	\$50.00		
정수현	\$5.00	스노호미쉬 노인회	\$50.00		
오만조	\$5.00	한인노인회	\$100.00		
이금순	\$5.00	김재희	\$200.00		
이순정	\$5.00	장길수	\$20.00		
김음전	\$5.00	김봉이	\$10.00		
양상봉	\$5.00	설양길	\$20.00		
최선기	\$5.00	이진향	\$20.00		

**<페난트 판매비>**

1390	장병문	\$10.00
1378	송천호	\$50.00
1366	김영봉	\$10.00
1394	이병학	\$10.00
1353	한효섭	\$20.00
1389	신석관	\$20.00
1333	정성훈	\$30.00
1395	안도균	\$20.00
1375	심재일	\$10.00
1374	정정춘	\$10.00
1377	심상우	\$10.00
1381	최명완	\$10.00
1385	이동호	\$10.00
1388	이정상	\$100.00
1379	쇼군식당	\$10.00
1393	강세철	\$100.00
1391	윤병환	\$20.00
1392	박정석	\$10.00
68	김미형	\$10.00
69	노리꼬하잉그	\$20.00
83	김현정	\$10.00
84	이선경	\$10.00
87	김경옥	\$20.00
89	김재욱	\$10.00
93	이호열	\$10.00
94	박용로	\$10.00
95	정혜승	\$10.00
96	곽영자	\$10.00
97	조미형	\$10.00
98	김골드	\$10.00
1038	제임스벳트	\$10.00
1037	스티브케인	\$10.00
1036	조기제	\$10.00

2309	김 러슬	\$ 10.00	4629	조만식	\$ 10.00	2654	Mrs.김	\$ 10.00
4837	김일영	\$ 20.00	4628	곽성국	\$ 10.00	2655	Mr. 최	\$ 10.00
2307	박상숙	\$ 10.00	4630	이형복	\$ 10.00	2656	이진호	\$ 10.00
2311	박우식	\$ 10.00	4647	김태권	\$ 20.00	2657	손순석	\$ 10.00
2601	허옥남	\$ 10.00	4651	김종근	\$ 10.00	2658	하 철	\$ 10.00
2602	장영자	\$ 10.00	4652	민명숙	\$ 10.00	2659	이석주	\$ 10.00
2603	임순자	\$ 10.00	4653	윤영자	\$ 10.00	2660	류재학	\$ 10.00
2604	김옥지	\$ 10.00	4654	홍원태	\$ 10.00	2661	윤태순	\$ 10.00
2605	박인원	\$ 10.00	4655	박장우	\$ 10.00	2664	이윤영	\$ 10.00
2606	오경화	\$ 10.00	4656	김효영	\$ 10.00	2668	김후인	\$ 10.00
2607	탐순정자	\$ 10.00	4657	Sue Mew	\$ 1,000.00	2669	이상현	\$ 10.00
2608	이영자	\$ 10.00	4658	김옥진	\$ 10.00	2670	정명수	\$ 10.00
2609	정금자	\$ 10.00	4659	이춘남	\$ 10.00	2671	김순옥	\$ 10.00
2610	이영주	\$ 10.00	4660	박복순	\$ 10.00	2672	김순자	\$ 10.00
2611	이진성	\$ 10.00	4661	임문규	\$ 10.00	2664	오미숙	\$ 20.00
2612	김석순	\$ 10.00	4662	유중호	\$ 20.00	3057	박설봉	\$ 100.00
2613	박성자	\$ 10.00	4663	장수미	\$ 10.00	81	김현수	\$ 100.00
2614	윤수복	\$ 10.00	4664	박금자	\$ 10.00	82	김병직	\$ 100.00
2617	강영희	\$ 10.00	4665	윤영자	\$ 10.00	1039	송미숙	\$ 50.00
2621	이문자	\$ 10.00	4666	김주영	\$ 10.00	1040	김영숙	\$ 50.00
2622	심종수	\$ 10.00	4667	황복희	\$ 10.00	360	세관가우	\$ 10.00
2625	나용섭	\$ 10.00	4668	홍인숙	\$ 5.00	361	데미세 요셉	\$ 10.00
2626	손석순	\$ 10.00	409	이상옥	\$ 10.00	362	세이차우 산신	\$ 10.00
2627	양수진	\$ 10.00	412	이상문	\$ 10.00	363	세이차우 쿠이힌	\$ 10.00
2628	손순오	\$ 10.00	413	박연철	\$ 10.00	364	리 상	\$ 10.00
2629	양영숙	\$ 10.00	414	김봉석	\$ 10.00	365	탐 홈	\$ 10.00
2630	배대남	\$ 10.00	415	김재인	\$ 10.00	366	김남삼	\$ 10.00
2631	이상은	\$ 10.00		곽분순	\$ 5.00	367	사우세도 곤자로	\$ 10.00
2632	손목학	\$ 10.00	417	한순애	\$ 10.00	368	리 니아	\$ 10.00
2633	유남숙	\$ 10.00	418	김은선	\$ 10.00	369	세이턴 나이왕	\$ 10.00
2634	김순애	\$ 10.00	430-434	Bill P	\$ 50.00	371	판 콤	\$ 10.00
2636	고광운	\$ 10.00	482	백남정	\$ 10.00	370	봉사이투트	\$ 10.00
2637	손태만	\$ 10.00	487	유정자	\$ 10.00	372	세타오라이양	\$ 10.00
2638	김봉애	\$ 10.00	491	황용준	\$ 10.00	373	세관메우이	\$ 10.00
2639	첸 안	\$ 10.00	492-494	김기남	\$ 30.00	374	채코우스	\$ 10.00
2640	민경희	\$ 10.00	495	최채선	\$ 10.00	375	인시틀	\$ 10.00
2641	권병국	\$ 10.00	496	양희영	\$ 10.00	376	스바나사오보슈	\$ 10.00
2642	권옥희	\$ 10.00	497	이봉건	\$ 10.00	377	엔사망	\$ 10.00
2643	임영창	\$ 10.00	498	문선근	\$ 10.00	378	세턴피퐁	\$ 10.00
2644	김태선	\$ 10.00	499	무명씨	\$ 10.00	379	씨단돈보	\$ 10.00
2645	권난우	\$ 10.00	2310	레이움	\$ 10.00	380	행 시비행	\$ 10.00
2647	김영자	\$ 10.00	2313	조병권	\$ 10.00	381	페취 탄	\$ 10.00
4670	Robert Lucey	\$ 10.00	2314	김병학	\$ 10.00	382	토 부닐	\$ 10.00
4669	고시방	\$ 10.00	2305	봄 샌디	\$ 10.00	383	케오찬다라	\$ 10.00
4613	김태현	\$ 10.00	2312	이영희	\$ 10.00	384	엄 베스	\$ 10.00
4614	Ronald Griffin	\$ 20.00	2303	신동선	\$ 20.00	385	용 콘	\$ 10.00
4615	최창만	\$ 20.00	2302	김두환	\$ 10.00	386	타리 임페	\$ 10.00
4633	전황성	\$ 10.00	2301	윤원우	\$ 10.00	387	판 레드	\$ 10.00
4635	오상문	\$ 10.00	1397	미르나리	\$ 300.00	388	브라운 린다	\$ 10.00
4637	임영철	\$ 10.00	1939	제시카리	\$ 35.00	389	폰름	\$ 10.00
4616	한선영	\$ 10	1940	니나 리	\$ 35.00	390	세리	\$ 10.00
4617	박순균	\$ 10.00	1941	알렉산드리	\$ 30.00	391	세네부타라스마크	\$ 10.00
4623	안무실	\$ 50.00	2648	윤청자	\$ 10.00	392	크린우드	\$ 10.00
4624	강화남	\$ 10.00	2649	박종숙	\$ 10.00	393	닥 어바인	\$ 10.00
4622	유철웅	\$ 10.00	2650	장부영	\$ 10.00	394	매츄로멘	\$ 10.00
4625	이한형	\$ 10.00	2651	김정중	\$ 10.00	395	우도브로스만	\$ 10.00
4626	이천영	\$ 10.00	2652	홍 박	\$ 10.00	396	주루아모라	\$ 10.00
4627	성성모	\$ 10.00	2653	Mrs.정	\$ 10.00			

51 페이지에 계속

### 1988년도 행사업무 보고서

#### 1. 한인회 신.구 합동 이사회

1987년 12월 22일 오후 6:30 영미정에서 모임

최주산, 고봉식, 윤광남, 김형달, 백용기, 한원섭, 이석주, 정병국 참석.

(한국일보 김종모기자 배석)

1) 신임 이사장단 선출및 인수인계 준비

2) 이사장:백용기, 부이사장:한원섭

3) 윤광남회장:87년도 부제, 행정미결사항등 책임질 것을 약속

4) 최주산회장:공약금 (\$6500.00) 인수모구

#### 2. 시무식 및 임원이사상견례

1988년 1월 8일 오후 7시 신아식당에서 임원이사 25명 참석(임원이사부부)

1)최회장:외관건립, 외보발간, 한국외남, Seafair Parade, 노인잔치 등 약속(임기중)

2)정병국사무총장:1988년도 업무행사예정도 발표 및 타임,명함등 배부

#### 3. 신년 학예식:

1988년 1월 9일 오후 2:00-4:00 영미정에서

역대회장/이사장 및 총영사등 70명 참석

최주산 회장 인사, 총영사축사, 김상구목사의 기도

한인회기 중정:1988년도 회장 박백모, 이사장 최경수 (최주산회장 인수)

#### 4. 부동산 소개업자의외

1988년 1월 11일 오후 6:00-8:00 한인회사무실에서

부동산업자 3명, 최회장, 정사무총장, 백용기 이사장 참석

한인회관 건물 용상및 사무실건물 소개모독

#### 5. 한인회 역대회장/이사장 및 임원이사간담회

1988년 1월 21일 오후 6시-10시 Lynnwood International Inn에서 80명 참석

한인회관 건립기금 \$105,400.00모금 (현금과 약정액)

사회:정사무총장, 최장인사, 총영사축사, 김간판관사의 한인회 발전의

역대회장 12명, 이사장 4명 참석.

#### 6. 제 1회 정관(회칙개정)위원회

1988년 1월 26일 오후 6: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구범희, 정병국, 장진섭, 문희동, 민학수, 백용기, 최주산 등 7명 참석.

안건: 1)한 한인회칙을 기존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작업

2)학계에서 4명을 보충하여 회칙개정위원을 11명으로 종연 요청

(최주산회장은 자문위원으로)

#### 7. 주지사 방문인사

1988년 2월 3일 오전 9:30- 11:30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참석자:최회장, 심영식 부회장, 박백모, 김인국, 모건 콜츠

1) 한인회관 후보건물 물색예협조약속(공공 건물중)

2)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약속(6월 25일)및 Cosars 축구장과 인산경기 참가약속

3) 88 서울올림픽 협조 및 최회장 귀빈대접

#### 8. 2월 정기임원이사회

1988년 2월 6일 오후 7시-10시 최회장당에서 52명 참석(부부동반)

1)3.1절 행사계획(영사관, 마코마와 절충회의)

2)외관건립 추진위원회의 잠정조직

3)88년도 한인회 예산 심의통과(이사회)

#### 9. 제 2회 회칙개정위원회

1988년 2월 8일 오후 7시-11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참석자: 최주산, 구범희, 정병국, 민학수, 장진섭, 박귀희, 김경부, 황동규, 조원일,

문희동, 백용기 11명 참석

1)회칙개정위원회의 위원장에 구범희, 총무위원에 정병국피선

2)한인회장이 위촉장 수여(회칙 제 23조제외거)

3)한인회 영정문제 토의. 기본법(현회칙)수정 및 조별 축소심의

4)작업 일정 발표

10. 상사/지사협의회 오찬회

1988년 2월 12일 12:00-2:00 신바시당에서  
상사/지사대표 8명 및 한인의 임원 4명 총 12명 참석 (최희장, 백이사장, 안원섭 정병규)  
1) 상견례 및 자유포론  
2) 한인회관 건립기금모금방안 강구: 본사와 연락하여 적구협조 약속  
3) 한인회 광고안내

11. 대통령 취임식 참석

최희장, 온상인, 김중만, 이종헌, 정병규, 제임스 미 참석  
1988년 2월 22일 - 3월 4일 한국, 서울  
1) 취임식 참석 (공식 스케줄 3일간)  
2) 한인회 업무: 한구의 날 행사에 필요한 품목주문 및 구입

12. 제 3회 최희장계정위원회

1988년 2월 22일 오후 7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7명 참석  
현행회칙을 조별로 심의수정

13. 무로 의로봉사 실시

2월 27일 - 4월 20일까지 7차에 걸쳐 실시.  
담당의사: 홍인포 신경정신과, 로명재산부인과, 박종기내과, 김순희내과

14. 제 69주년 3.1절 행사

1988년 3월 1일 오후 7시-9시 타코마 한인회와 합동으로 상공회의소에서 150명 참석  
총영사 추사, 양 한인회장의 기념사(이영부, 이석주), 주한식육사기도, 기념식상장포  
만세 삼창, 김동업목사의 독립선언문 낭독, 씨예를 한인회에서 디과제공.

15. 무로 세무보고 실시

3월 - 4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고민에게 무료봉사  
담당 회계사: 이석주, 손기남, 허신, 김용철 (총 16명)

16. 제 4회 최희장계정위원회

1988년 3월 14일 오후 7시-10:30 한인회 사무실에서 8명 참석.

36. Seafair Parade에 참가 2회 입상

1988년 8월 5일 한인회 임원 이사 23명 참가 협조. 150개 팀 중 총합 2위 입상  
신우회 및 이영구해관도협회참석 총 참석인원 110명, U.W. 대학생 협조.

37. 외관건립위원회

1988년 8월 27일 오후 7:00-9:00 한일각 식당에서 총 51명 중 29명 참석  
1) 외관후보건물 브리핑 2) 건립소위원회 구성 (15명)  
3)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조편성 (지역별)

38. 청소년 여름캠프 실시

1988년 8월 15일-18일 (3박 4일) 캠프 케이지에서 총 27명 참석.  
강사: 심영식, 스니아 김, 정병규  
방문 지역: 최희장, 백이사장, 윤관남, 박베로, U.W. 학생회장(심기혁) 및 에스머 김

39. 외관건립 소위원회

1988년 8월 31일, 9월 29일, 10월 18일, 10월 25일, 10월 31일, 11월 5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4회 모이고, 현 외관건립에서 2회 모임.  
1) 외관구입 경과보고 및 계획 2) George Town Bldg. 으로 확정  
3) 궁정회를 금지사항으로 대처 4) 구입과정부 (Escrow Open 후 공개 오픈하우스 개최)  
5) 계약서 공개 및 질의응답 (소위원회)

40. 긴급 임원 이사회

1988년 9월 1일 오후 7:00-10:00 총 18명 참석  
1) 추석 노인잔치 계획 발표 2) 외관 후보건물 확정 발표  
3) 대 총영사관 문제토의, 결의문 채택 발송기로 결의

41. 9월 정기 임원 이사회

1988년 9월 10일 오후 6:00-9:00 한인회 사무실에서 19명 참석  
1) 추석 노인 잔치: Marysville 회농장에서 그로서미협회와 공동 개최  
세탁협회에서 밴드제공. 그로서미협회에서 음포수, 맥주, 삼기를 제공  
2) 외관 건물: 포지 마운 빌딩으로 결정. Offer 제출  
3) KIRO-TV (Seafair Parade) 항의문 제출 결의

42. 고포 김경완회 건립기금으로 3만불 기탁

1) 회칙수정 1조-7조 2) 소집일정 재조정

3) 업무규정-정병규, 재무규정-조원일, 선거제지-장진섭, 각각 초안하여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심의기로 합의.

17. 3월 정기 임원이사회

1988년 3월 19일 오후 7시-10시 벵용기이사장실에서 28명 참석  
1) 건립기금 현황보고 및 모금운동 전개 방안 강구  
2) 페난트판매계약회 3) 한구의 날 행사 준비 토의

18. 제 5회 최희장계정위원회

1988년 3월 28일 오후 7시-10:30 한인회 사무실에서 7명 참석  
1) 현 회칙 심의 및 수정 33조부터 끝까지  
2) 한인회명칭 및 관할문제  
3) 회원자격 및 추진이사문제 토의

19. 임시임원회

1988년 4월 6일 오후 7: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12명 참석  
1) 한구의 날 행사토의: 채우대회, 한글 백일장, 축제의 밤, 인예인 축구단 초청 (30명내)  
2) 한인회 광고: 임원들이 지역별로 분담  
3) 페난트 판매 대책 강구: 임원이사 각자 100개씩 분담, 한계에 \$10,000이상

20. 스노모미시 군수 방문인사

1988년 4월 5일 3:30-4:30. 최희장, 박베로, 심재환, 심남숙 참석.  
한인회에 협조약속

21. 제 6,7회 최희장계정위원회

1988년 4월 11일 오후 7:00-11:00., 1988년 4월 25일 오후 7: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8명 참석  
1) 한인회 명칭은 그대로 2) 관할구역은 킹 가운미 및 스노모미시 카운티구역으로 제한

22. 한국일보 좌담회

1988년 4월 26일 오후 7:00 한인회 사무실에서 10명 참석

1988년 9월 11일 심재환사무차장의 소개추진으로 김경완비대을 방문하여 3만불  
약정서를 받고 일년에 \$10,000.00씩 본납기로 합의  
참석자: 최주환, 벵용기, 안원섭, 윤상인, 정병규, 심재환 (각 인본기관 기자3명)

43. 88서울 올림픽 개막식 참석

1988년 9월 12일-9월 22일. 최희장, 정사무총장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출장.  
1) 한인의 추석노인잔치 상패 및 프랑카드 제작  
2) 올림픽 관계자로 수집소개 (한국 총합 4위)

44. 추석 노인대잔치

1988년 9월 24일 오전 9시-오후 5시 . Marysville 회농장에서 5개 노인회에서 400여명 참석  
풍대지 (300파운드), 맥주, 소주, 떡, 불고기, 등의 음식과 오락프로그램, 장거대회 실시.  
수상자: 1등: 김기남, 2등: 이영호, 3등: 안영화,  
단체상: 스노모미시 노인회 맹은상: 김진순  
맹은택 (88세): 과동성, 박종헌, 최비 장수패 (90세이상): 이윤열

45. 총영사관/한인회 합동 간담회

1988년 9월 26일 오후 7:00-10:00 신바시당에서.  
총영사관측 4명(진원), 한인회측 20명 참석  
1) 총영사인사 및 불편했던 관계 해결 사항  
2) 최희장 자신의 불참에 대한 사과  
3) 상호 화해로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상호 협의

46.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1988년 10월 14일 오후 7:00-9:30분. 한인회 사무실에서 4명 참석 (5명중)  
1) 선거제칙 심의 통과 2) 행정/계무간사 선출 (정병규)  
3) 입후보자 구비서류 확정

47. 한인회 임시총회 개최

1988년 10월 31일 오후 7:00-9:30. 한인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35명 참석  
1) 개정회칙 수정 통과 2) 외관구입 결의 설명  
3) 개정회칙 1989년도 부여 표적 발송

48. 임원이사회, 선관위 및 건립소위원회의 합동연석회

한인회관건립기금모금에 대한 캠페인 방안

참석자: 최희장, 백이사항, 한원식, 정병국, 이동림박사부부, 김형작, 윤상인  
한국일보: 조병우, 김유경.

23.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참석

1988년 4월 27일 - 30일. Washington D.C.에서 3일간.

최희장, 정사무총장 참석. 각지역에서 85명 참석  
지역 한인회보고에서 최희장 연설. 페난트판매에 대해 적구조용. \$580.00 거출

24. Ethnic Festival에 참가

1988년 4월 29일 - 5월 1일 (3일간) 노스게이트 사임센터에서

한인회에서는 88올림픽 홍보활동: TV, VCR로 조별 임원편성, 인쇄물 및 홍보자료 배부

25. 킹 카운티 군수 방문인사

1988년 5월 6일 오전 9:30 최희장, 정병국, 심영식, 손기남 참석

한인회관 건물 후보소개 및 협조(공공건물)

26. 5월 정기 임원이사회

1988년 5월 7일 오후 7:00-10:00 한원식 부이사장대에서 21명 참석

1)한국의 날 행사 세부계획 토의 2)연예인단 민박스케줄 작성  
3)회관건립기금 모금활동과 방안 강구

27. 제 8,9회 회칙개정위원회

1988년 5월 9일 오후 7:00-10:30 한인회 사무실에서 7명 참석

1988년 5월 23일 오후 7: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8명 참석

1)개정회칙 재검토 2)삭제 및 보완작업 3)업무규정 및 재무규정 심의통과  
4)회중 정서 및 한인회장에게 결재상신키로 합의

28. Seattle시장 Charles Royer 방문

1988년 5월 10일 오후 2:00-3:00 최희장, 이석주, 심영식, 정병국, 손기남, 이현기.

회관건물 알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

29. 제 6회 한인회장예 정발촉구대회

1988년 5월 21일 오전 9:00- 오후 6:00 Fife High School에서 10개팀 참가

장년 부우승:축우회, 준우승:타코마팀, 청년부우승:북부비에틀팀, 준우승:축우회

30. 한국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3회 모임)

1988년 5월 25일, 6월 11일, 6월 18일, 한인회 사무실 및 Tye High School에서

실무자 및 준비위원 (30명이상)들이 모여 각 분야별 임무와인 및 행사계획표작성  
(실행위원:정병국, 황동규, 구백진.)

31. 6월 정기 임원회

1988년 6월 4일 오후 7: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집행부임원 17명 참석

1)한국의 날 행사 업무분담 및 조직

2)연예인 촉구대회 및 공연건

3)S.A.T. 강좌실시계획의 발표

32. 6월 정기 이사회

1988년 6월 10일 오후 7: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사 10명 (18명중)참석

한국의 날 행사지원 및 페난트판매 독려 협의

33. 한국의 날 행사에 대한 KOAM-TV 인터뷰

1988년 6월 14일. 한국의 날 행사계획의 민 준비에 대한 TV 인터뷰, KOAM-TV에서.

대담에는 최희장, 정사무총장 (오후 2:30에서 1시간).

34. 한국의 날 행사

1)때:1988년 6월 25일 (토요일) 오전 8:00-오후 6:00

2)곳:Tye High School 구장

3)참석자:Booth Gardner 주지사 및 미국계 정치인 30여명, 비에틀-타코마고민 1200여명,

4)내용:종합체육대회, 한글 배말장, 연예인 축제의 밤 공연등 연 3일간

연예인들에게 명예시민권 수여등

5)시상내용:생략(한인회보 참조)

35. 8월 정기 임원회

1988년 8월 13일 오후 6:00-10:00 한인회 사무실에서 12명 참석

1)Seafair Parade 결과보고

2)참소년 캠프준비등 현안문제 토의



JOHN A. CHERBERG  
LEUTENANT GOVERNOR  
OLYMPIA, WASHINGTON 98504

November 22, 1988

1988년 11월 5일 오후 7:00-9:30 영미정에서 35명 참석  
1)98년도 회장단 및 이사임무 보통선거 (11월 10일까지)  
2)아티랑의 밤 개최건:U.N의 허가를 못 얻으면 새 한인회관에서 Cocktail Party로 거행키로 합의  
3)11월 19일 입주식 및 정기총회 준비  
4)마지막 한인회보 발행준비(원고 정박 완료)

49. 새 한인회관 오픈 하우스

1988년 11월 6일 오후 3:00-7:00 새한인회관 건물 2층에서 총 48명 참석

1)회관구입에 대한 경위설명 (최희장)

2)건립 소위원회 결과보고 및 페이먼트스케줄 설명 (오준걸)

3)Escrow close:11월 15일 가능함

4)입주식 및 이사준비 계획발표(정병국)

5)회관 기증 품목발표 및 접수사항(정병국)

50. 한인회관 입주식 및 정기총회 소집

때: 1988년 11월 19일 12:00(정오)

곳:새 한인회관 2층

내용:입주기념식 및 정기총회 개최

51. 한인회 총무식 및 망년회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새로입주한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총무식 및

망년회를 가졌다.

52. 한인회보 (송년특집호)를 25일 발행

Dear Mr. Chai:

Thank you so much for a very enjoyable

afternoon in your Korean Association Building.

I thoroughly enjoyed the occasion and the

opportunity to meet so many outstanding, kind and

generous people.

May I offer my warmest personal regards and

best wishes for the great success of the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Sincerely,

John Cherberg

『한인회관 입주식에 참석한 부지사가  
한인회장에게 보낸 감사서한』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BALANCE SHEET Oct 31, 1988

ASSETS

CURRENT ASSETS

Cash In Checking	8,160.77
Cash: Total	0.00
Cash In Savings, build. fund	185,125.04
Cash In Savings, C.D	0.00
Security Deposit	0.00
<b>TOTAL CURRENT ASSETS</b>	<b>193,285.81</b>

FIXED ASSETS

Furnitures & Fixtures	12,753.00
Building	20,000.00
Less Accum. Depreciation	8,159.00
Subtotal	24,594.00
<b>TOTAL FIXED ASSETS</b>	<b>24,594.00</b>

**TOTAL ASSETS** 217,879.81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INCOME Jan 1, 1988 TO Oct 31, 1988

REVENUE

REVENUE

General Donations	17,407.67
Membership Dues	8,155.00
Advertising Sales	2,110.00
Activity, Youth Camp	1,270.00
Activity, SAT Class	2,721.68
Victoria Team	24,241.50
Special Contrb., address Bk	7,800.00
Building Fund	133,913.19
Building Fund, pendant sale	24,671.00
Interest Earned	4,042.65
<b>TOTAL REVENUE</b>	<b>226,332.69</b>

**TOTAL REVENUE** 226,332.69

LIABILITIES

**TOTAL LIABILITIES** 0.00

EQUITY

FUND BALANCE

Beginning Fund Balance	47,542.20
Current Fund Available	170,337.61
<b>Ending Fund Balance</b>	<b>217,879.81</b>

**TOTAL EQUITY** 217,879.81

**LIABILITIES AND EQUITY** 217,879.81

EXPENSE

Operating Expenses

Office Rent	3,180.00
Office Parking	300.00
Telephone & Utilities	2,019.51
Repair & Maintenance	1,187.67
Office Supplies	624.61
Bank Charges	40.88
Postage, bulk mail, box rent	1,829.90
Advertising & Promotion	2,579.81
Donations	2,280.00
Meetings, board & members	1,049.74
Trophy & Certification	568.40
Printing	4,946.01
Building Fund Expenditures	959.18
Arrirang Night	178.10
Seafair Expenditures	1,622.85
SAT Class Expenditures	1,315.92
Senior Citizen Expenditure	589.89
Korean Date Expenditures	5,235.54
Victoria Team Expenditures	23,065.80
Youth Camp	2,421.27
<b>TOTAL OPERATING EXPENSES</b>	<b>55,995.08</b>

**TOTAL EXPENSE** 55,995.08

**INCOME** 170,337.61

# 88한인록 발간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8년도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기념 특집으로 워싱턴주 전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총망라하여 영구보존용으로 한인록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히 88 한인록 광고비의 일부를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송당코저 하오니 내집을 마련하는 마음 자세로 적극 협조에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주요 내용

- ① Blue Page :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 ② White Page : 개인주소록(ABC 순)
- ③ Yellow Page : 산업정보, 업소 및 단체업소, 회사등
- ④ Pink Page : 생활정보, 긴급정보, 주요상식등

■ 한인록 수록대상

워싱턴주 전지역 교민대상, 개인업소, 단체업소, 회사 및 각 단체 주소 및 광고

■ 규격(크기) : 가로8인치 X 세로11인치

■ 발행부수 : 약10,000부 예상, 400페이지 내외

■ 발행예정일 : 1988년 8월31일

■ 주소록 및 광고접수 마감 : 1988년 5월31일

■ 접수 및 연락처 :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편집실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206)362-4500  
P. 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 한인록 수록 신청 방법

열 양식에 기재하신후 위 주소로 보내시거나 각 한국마켓, 식당에 비치된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광고 신청 방법

아래 양식에 의해 신청하시거나 한인회에서 보낸 광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단 광고지면의 우선권은 선착순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한인회에 문의 바랍니다.

■ 한인록 기재 신청원(개인)

이름	한글	
	영문	
주소		
전화번호	집	직장

■ 한인록 기재 신청원(업소 및 회사등)

업소이름	한글	
	영문	
업소주소		
전화번호	집	직장
소유자이름	한글	
	영문	
소유자주소		

■ 광고 신청서(업소용)

- 1) full page(뒷장, 박록 color) \$2,000.00(01업소)
- 2) full page(뒷장, 안록 color) 1,500.00(01업소)
- 3) full page(앞장, 안록 color) 1,800.00(01업소)
- 4) full page(일반페이지 color) 1,200.00(05업소)
- 5) 1/2 page color 600.00(10업소)
- 6) 1/4 page color 300.00(20업소)
- 7) full page 일반페이지 흑백 800.00(05업소)
- 8) 1/2 page 일반페이지 흑백 400.00(10업소)
- 9) 1/4 page 일반페이지 흑백 200.00(20업소)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한인록 편집위원회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최주찬

이사장 백웅기



편집후기

1. 정녕 우리의 소원이라고 했던가? 엄청난 성화속에 또 뜨거운 열기속에 우리의 소원이었던 「한인회관」이 건립됐다.

불과 얼마전 88년 새 회장 인사말에서 지난 4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숙원이었던 「우리의 회관」을 짓고 말겠다고 기염을 토해내던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크고 작은 부작용, 몇몇 분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많은 교민들의 끈끈한 동포애로 드디어 해내고 말았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회관건립」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누구나가 다 그랬지만 모든 사적인 업무를 접어두고 글자 그대로 불철주야, 회관건립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한 해를 보낸 우리 최회장에게 한번쯤 박수를 보내봄이 어떠할런지?

새 회관 입주식때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개관 테이프 끊어지는 순간...

아! 산천도 울고 나도 울었노라...

이제는 너도 나도 「우리의 집」 「우리의 회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또 우리 모두가 회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내분신처럼 아끼고 가꾸자. 같고 닦고 쓸고

광이 번쩍거리도록 말이다.

2.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새 임원진 이사진들의 신년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한해가 가나 보다.

유별나게 바쁘고 유별나게 시골시골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 우리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그랬고 사상 최대의 세계제전인 올림픽이 그랬었고 또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그야말로 4반세기의 꿈이 이루어진 한해가 아니었나 말이다.

이제는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 88년의 멋진해를 도약으로 삼아 훨씬 멋진 89년을 맞이해 보자.

3. 금년 한인회보는 계간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또 교민들에게 읽히는 잡지식의 (최주찬회장의 특명) 회보를 꼭 4번 발간해 보려 했으나 세번 발간으로 끝을 맺나 보다. 나름대로의 변명이라면... 예년과 달리 크고 작은 행사가 줄줄이 있었고 또한 「회관건립제일」이라는 대명제속에...


지난 한해동안 고료(원고료) 없는 원고를 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J.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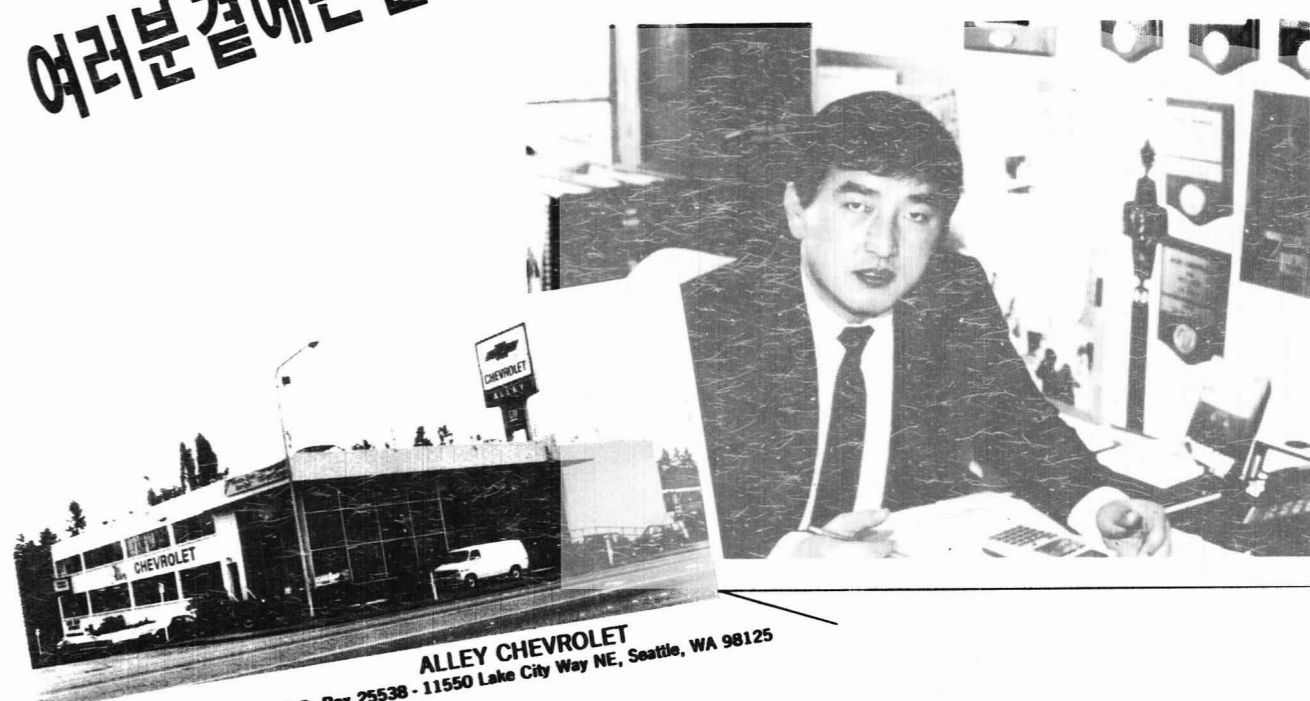
회관건물 구입내역

- 1) 위치 : 1200 So Angelo St. Seattle (George Town)
- 2) 대지 : 12,000sf. 건평 : 4,600sf (2층 목조)
- 3) 조건 : \$200,000 Down Payment Balance는 Owner Carry, No Co-Sign
- 4) Rental Income : 아랫층 \$1,600 윗층 \$500 Total \$2,100
- 5) 최종 Offer Price : \$380,850 (9/29 소위원회결정)
- 6) Zone : Business Commercial
- 7) 매월 Rental Income으로 자체 건물 Payment가능함.

- 8) 한인회장이 매년 \$20,000씩 Ballon Payment를 하면 5년내로 Balance Pay Off 할 수 있고 매년 \$10,000씩 지불하며 7년만에 완불할 수 있음
- 9) 건물은 4년반된 새 건물임
- 10) Asking Price : \$400,000
- 11) 건물옆 대지 약 6,000sf를 정리하여 Parking Lot으로 만들어 주는 조건임
- 12) 하층 Rent(Lease)는 3년에 매 1년씩 3회 Option이고 2층 1부는 센츄리 부동산이 쓰고 있음
- 13) Bank Loan 및 Co-Sign 필요없고 Owner가 자체 빌딩으로 담보 Carry함
- 14) 회관 구입시 지불한 금액 : \$201,600

THE Heartbeat OF AMERICA  TODAY'S CHEVY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제가 있습니다!



ALLEY CHEVROLET  
P.O. Box 25538 - 11550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DAVID J. SHIM (심재환)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Alley Chevrolet의 제1의 세일즈맨이된 데이비드 심(심재환)이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과 정직한 서비스정신을 제일로 생각하고 자동차 판매업계의 선두를 지키려는 굳센의지는 저의 사명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모든것을 저에게 맡기시고 전화만 주십시오. 교민을 위한 완벽하고 신속한 봉사료 보답하겠습니다.

IT PAYS TO REMEMBER  
**Alley** 

Bus: 363-6110  
Res: 483-3410

---

# AKAS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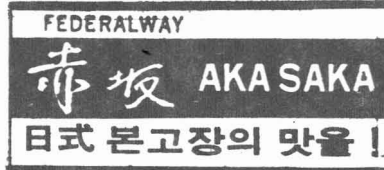
Ours is the  
Best You'll Find.

**OPEN 7 DAYS:**

**Mon.-Fri. 11 to 10**

**Sat. 12-10**

**Sun. 4-10**



**AUTHENTIC  
JAPANESE CUISINE**

**ENJOY OUR  
FAMOUS SUSHI**

**Simply  
Delicious!**

- ORDERS TO GO
- LUNCH AND DINNER
- SUSHI BAR
- TATAMI ROOMS
- SASHIMI

**FEDERAL WAY  
SHOPPING CENTER**  
31407-H Pacific Hwy. So.  
**946-3858**

---

시애틀 워싱턴·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o. Angelo St.  
Seattle, WA 98108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MR. HAHN, MAN S.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